



투자자 관점의

FRS 4 보험계약 2단계 회계기준

2015. 10. 21.

KAI

We bring the finest expertise and insight to our work.
We maintain our independence and fairness.
We are transparent in our decision-making process.
We pursue honesty and integrity.
We trust, communicate openly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CONTENTS

Korea Accounting Institute



제정 배경



IFRS 4 2단계 보험회계기준



IFRS 9와 IFRS 4의 관계

I

Korea Accounting Institute

제정 배경



I. 제정 배경

01 재무회계의 목적

- (재무보고의 목적)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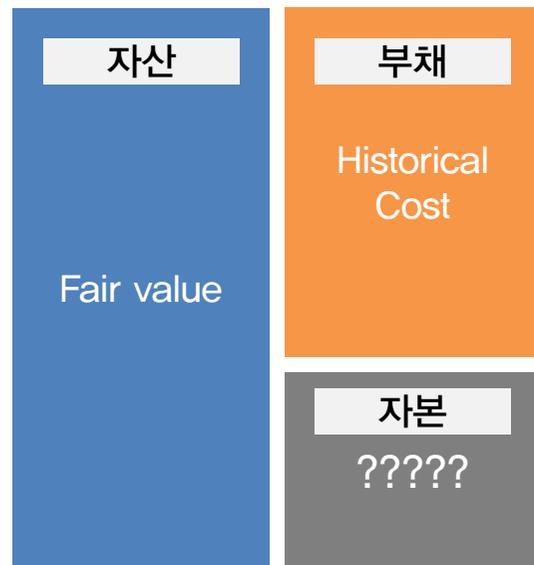
	IFRS 4 2단계	감독규정 (Solvency II)	MCEV
목적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 (public information)	보험계약자 보호	기업 내부에 정보를 제공 (internal information),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 (public information)
보고대상	투자자	감독당국, 일부 투자자	회사 내부, 투자자
기능	미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을 나타냄	보험회사의 위험 감수 능력 확인	현재 영업의 이익창출가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
범위	IASB가 정의한 보험계약	보험회사 전반	영업으로 유효한 보험계약
평가	할인된 기대현금흐름 +위험조정 +계약상 서비스마진	할인된 기대현금흐름 +위험마진	Free surplus +요구 자본(required capital) +현재 유효한 영업의 가치

I. 제정 배경

02 현행 재무회계에서의 자본

- (자본)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
- 기업의 순자산이나 지분과 동의어로 사용
- 자본총액은 그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 또는 순자산을 나누어서 처분하거나 기업 전체로 처분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현행〉



1. 자본금
2. 자본잉여금
3. 자본조정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 이익잉여금

- 보험사의 실질 가치를 나타내지 못함

I. 제정 배경

03 제정 배경

현행 보험회계의 문제점

● (투자자 등 재무정보이용자)

“보험사 재무제표, 이해하기 너무 어렵다!”

- ✓ 국가별로 다른 회계기준
- ✓ 보험산업의 특수한 회계처리
- ✓ 과거 정보를 이용한 보험부채 측정
 - 장기계약의 추정치가 업데이트되지 않음
 - 측정 할인율이 경제적 위험을 반영하지 않음
- ✓ 알기 어려운 이익 정보
 - 내재옵션과 보증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정보 부족

IFRS 4 2단계 보험회계기준

●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

● 회계정보의 유용성 증대

- ✓ 보험사의 경제적 실질을 충실히 표시
 - 현행시장정보를 반영하여 측정, 현금흐름의 특성을 반영한 할인율, 시간가치 반영
- ✓ 미래 이익의 예측 가능성 증가
 - 재무성과, 위험의 특성과 정도, 언더라이팅 활동과 투자활동으로 인한 손익
- ✓ 다른 산업과 비교가능성 증가

II

Korea Accounting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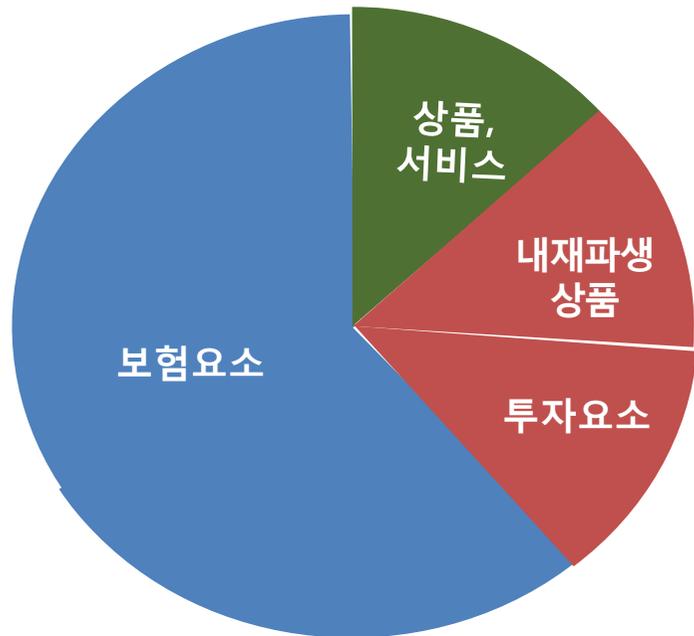
IFRS 4 2단계 보험회계기준



II. IFRS 4 2단계 보험회계기준

01 보험계약의 식별과 인식

- 보험계약의 실질을 반영한 회계처리
- 다른 산업과 비교 가능성 증가



- 유의적인 보험위험이 있는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정의
- 일부 명확한 비보험요소는 보험요소와 분리하여 다른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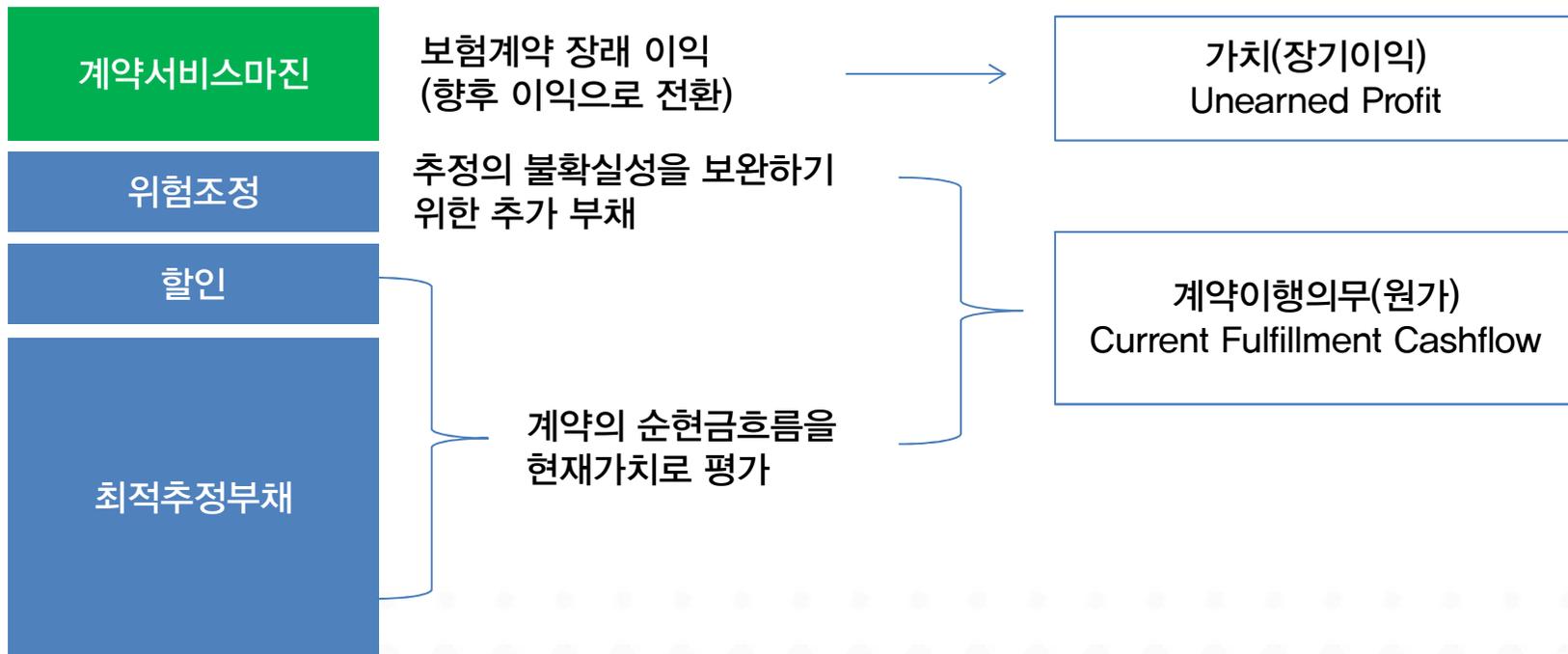
-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
- IFRS 9 '금융상품' 기준서
- IFRS 15 '수익' 기준서

II. IFRS 4 2단계 보험회계기준

02 보험부채의 평가

- 단일의 보험부채평가모형으로 비교가능성 증가
- 매 보고기간말 현행 할인율을 사용하여 할인함에 따라 할인율의 변동효과가 보험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 보유계약의 장래 이익 확인으로 보유계약의 가치 판단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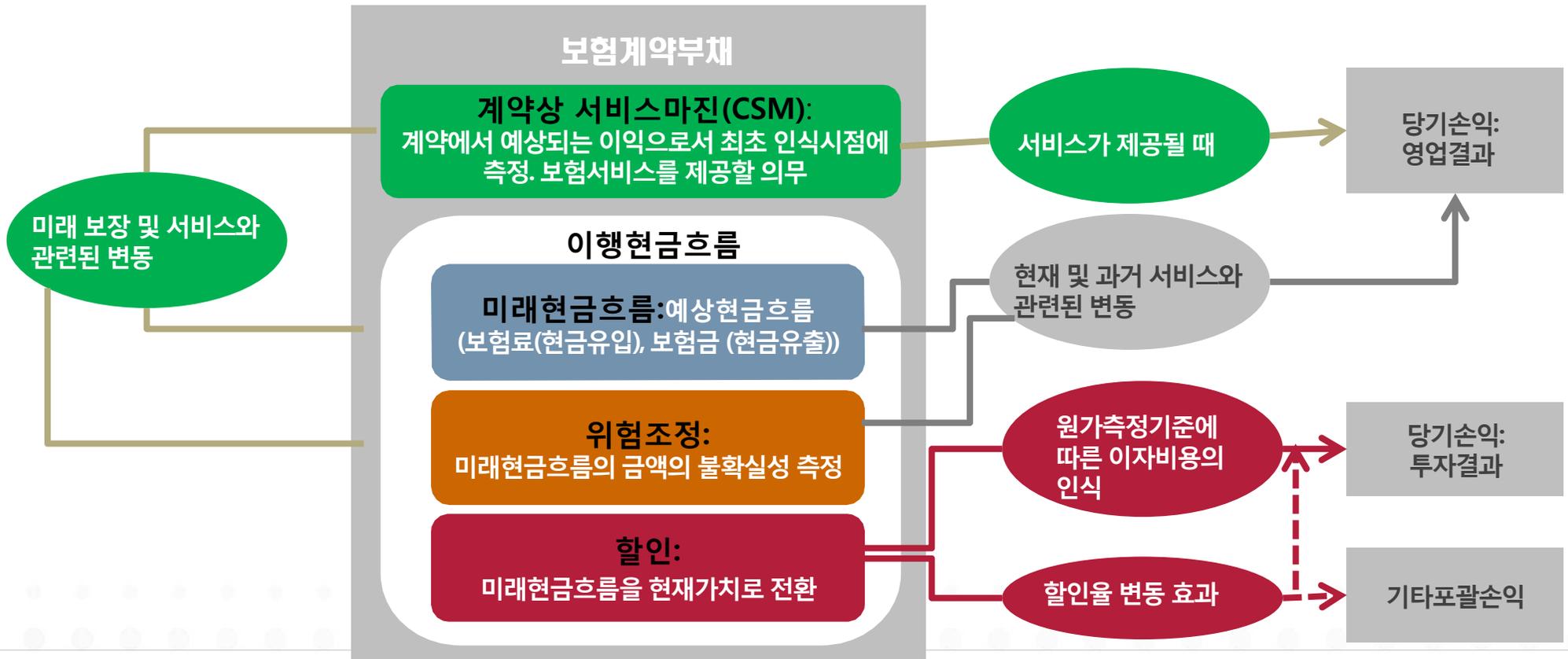
〈IFRS4 2단계 보험부채〉



II. IFRS 4 2단계 보험회계기준

03 보험계약의 측정모형 및 후속 측정

- 매 보고기간말 보험부채는 보험 보장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무를 나타냄
- 부채의 감소는 해당 기간에 제공한 보험 보장과 서비스 제공을 나타내며 이에 따라 수익이 인식
- 보험수익은 매 기간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의 가치를 반영



IFRS 4 2단계 보험회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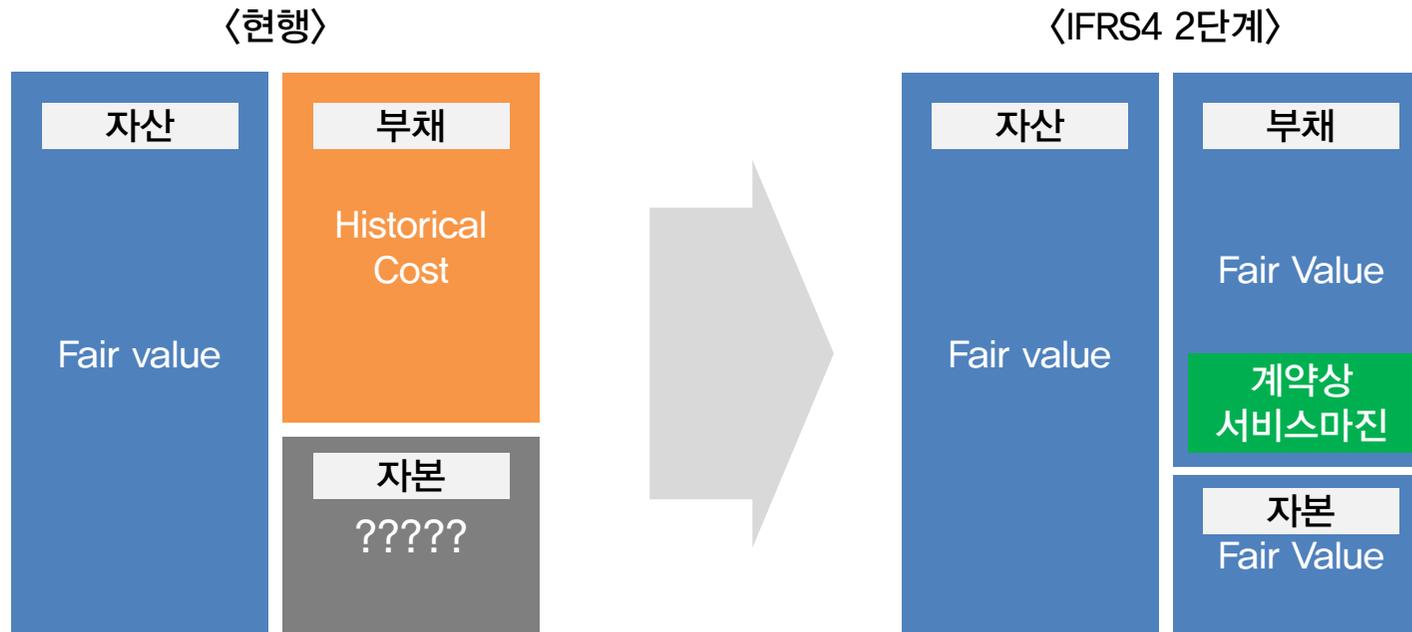
04 보험회사의 손익 표시

- 비보험사와 보험사간의 일관된 표시, 비교 가능성 증가
- 보험사 이익의 원천 정보 제공

	20XX	
계약서비스마진 상각		가득되거나 발생했을 때 수익과 비용 인식
위험조정 상각		
예상보험금 및 예상사업비		
보험계약수익	X	가득되거나 발생했을 때 수익과 비용 인식
발생된 보험금 및 비용	(X)	
영업결과 (A)	X	
투자수익	X	
보험부채에 대한 보험투자비용	(X)	보험투자비용은 회계정책의 선택에 따라 현행 관점을 사용하여 인식하거나 Cost view의 관점을 사용하여 인식
투자결과 (B)	X	
당기손익 (A) + (B)	X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		
할인율 변동으로 인한 보험부채 변동 (C)	(X)	만일 보험투자비용을 Cost view의 관점을 사용해 인식한다면 현행과 Cost 기준의 차이를 OCI로 표시
총포괄손익 (A) + (B) ± (C)	XX	

III. IFRS 4 2단계 보험회계기준

05 보험사의 재무상태 표시



- 보험부채의 역사적 원가 표시로 실질가치와 회계상 가치의 괴리
- 내재가치(EV) 등 일부 자료를 통해 보완하고 있지만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 측면에서 그 역할은 제한적

- 보험부채의 공정가치평가로 실질가치와 회계정보의 괴리 감소
- 보유계약가치 평가에 대한 신뢰도 제고

III. IFRS 4 2단계 보험회계기준

06 공시사항

- 보험계약, 보험계약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측정을 위해 사용한 가정, 측정 시 사용한 판단 등에 대한 폭넓은 공시로 이해가능성 증가
- 금액
 - ✓ 미래 지급액과 수취액의 기대 현재가치
 - ✓ 위험과 계약상 서비스 마진의 금액
 - ✓ 해당 기간에 새로 발행된 계약
 - ✓ 화폐의 시간가치(보험투자비용)
- 판단
 - ✓ 보험부채의 측정 시 사용한 방법과 투입변수
 - ✓ 보험부채의 측정 시 사용한 방법과 투입변수의 변경으로 인한 효과
 - ✓ 변경한 원인에 대한 설명, 영향을 받은 계약의 유형을 식별
- 위험의 정도
 - ✓ 위험의 특성과 정도
 - ✓ 재보험 등으로 인하여 완화된 위험의 정도
 - ✓ 신용위험, 시장위험, 유동성위험에 익스포저된 정도를 나타내는 양적 정보

II. IFRS 4 2단계 보험회계기준

07 관점에 따른 IFRS 4 2단계

재무제표작성자가 보는 IFRS 4 2단계

- 1 부채 규모의 증가**
고금리 보장 상품의 비중이 높아 재무비율 악화
- 2 자본의 변동성 확대**
현행 할인율의 변동 효과를 부채 측정에 반영
- 3 보험수익 규모의 감소**
보험수익에서 저축요소를 제외
- 4 수익 및 이익의 평준화**
예상이익을 보험기간에 걸쳐 배분
- 5 인프라 요구 증대**
보험부채 측정 및 손익 인식 방식의 변화로
결산 작업량 증가

투자자가 보는 IFRS 4 2단계

- 1 보험사/보험부채의 실질가치 평가 가능**
보고기간말 마다 현행가치로 측정
- 2 정보 유용성 증가**
손익/자본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는 혼란을 야기
- 3 타 산업과의 비교 가능성 증대**
동일한 수익 인식 기준/실질에 따른 회계처리
- 4 예측 가능성의 증가**
장래 이익인 계약성 서비스 마진의 표시/인식
- 5 신뢰성 제고에 따른 기업 가치 상승**
보험부채 측정 및 손익 인식 방식의 변화

II. IFRS 4 2단계 보험회계기준

08 보험사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는 두 회계기준의 진행상황

금융상품 회계기준

- IAS 39의 복잡성과 불명확성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순응성' 문제 해결 필요
- 글로벌 단일의 회계기준에 대한 요구
미국회계기준과의 합치 요구



- IFRS 9 발표(2014.7월)
- K-IFRS 1109호(2015년말 예정)
- 2018년 의무시행(조기적용 허용)

보험 회계기준

- 보험 회계기준 개선 프로젝트를 2004년부터 진행
- 1단계: 기존 보험업 실무를 거의 인정
- 2단계: 보험부채 시가 평가



- 2015년말까지 기준서의 내용 확정 2016년 중 발표 예정
- 2020년 이후 시행 예상

III

Korea Accounting Institute

IFRS 9와 IFRS 4의 관계



III. IFRS 9와 IFRS 4의 관계

01 IFRS 9와 IFRS 4의 관계

- (IFRS 9 '금융상품' 과 IFRS 4의 관계) 새로운 보험회계기준 적용 전 IFRS 9의 적용으로 인한 회계불일치와 손익변동성의 문제 해결 필요



III. IFRS 9와 IFRS 4의 관계

01 IFRS 9와 IFRS 4의 관계

IFRS 9의 적용 연기 (Deferral Approach)

- (대상) 보험계약 발행이 주된(predominant) 활동인 보고실체
- (Predominant의 기준) 보험계약의 총부채를 보고실체 전체의 부채와 비교
- (적용범위) 해당 보고실체의 모든 금융자산에 적용
- (적용 시기) 2020년 말까지 적용 가능

손익변동성 조정(Overlay Appro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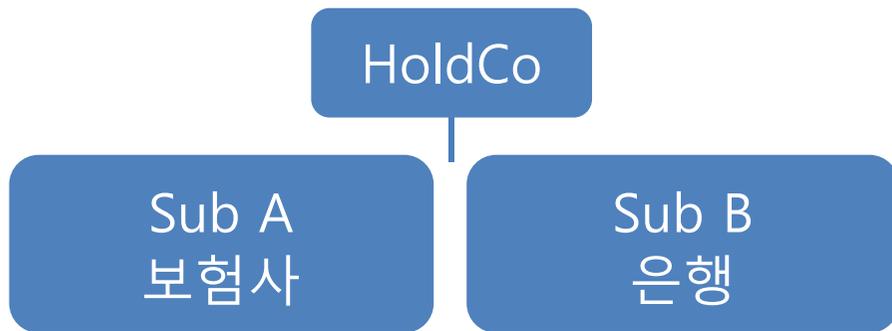
- (대상) IFRS 4와 IFRS 9를 적용하는 기업
- (방식) 특정 자산의 다음 두 금액의 차이를 OCI로 인식
 - ① IFRS 9에 따른 당기손익인식금액
 - ② IAS 39에 따른 당기손익인식금액
- (적용 시기) IFRS 4 2단계의 시행일전까지 적용 가능

- ✓ '15년 말 현행 IFRS 4를 개정하는 공개초안 발표 예정
- ✓ '16년 3분기 개정 기준 발표 예정

III. IFRS 9와 IFRS 4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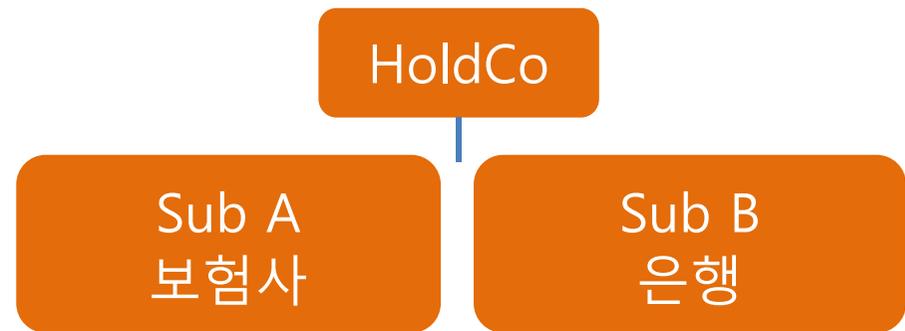
02 IFRS 9의 적용 연기 (Deferral Approach)

보험사업이 Predominant한 경우



- 연결재무제표의 모든 금융자산에 IAS 39를 계속 적용할 수 있음(선택)
- Sub B(은행)은 별도 재무제표에 IFRS 9를 적용해야 함

보험사업이 Predominant하지 않은 경우



- 연결재무제표의 모든 금융자산에 IFRS 9를 적용해야함
- Sub A(보험사)는 별도 재무제표에 IAS 39를 적용할 수 있음(선택)

감사합니다.

Solvency II Implementation

Allianz Life Korea

October 21, 2015

Solvency II in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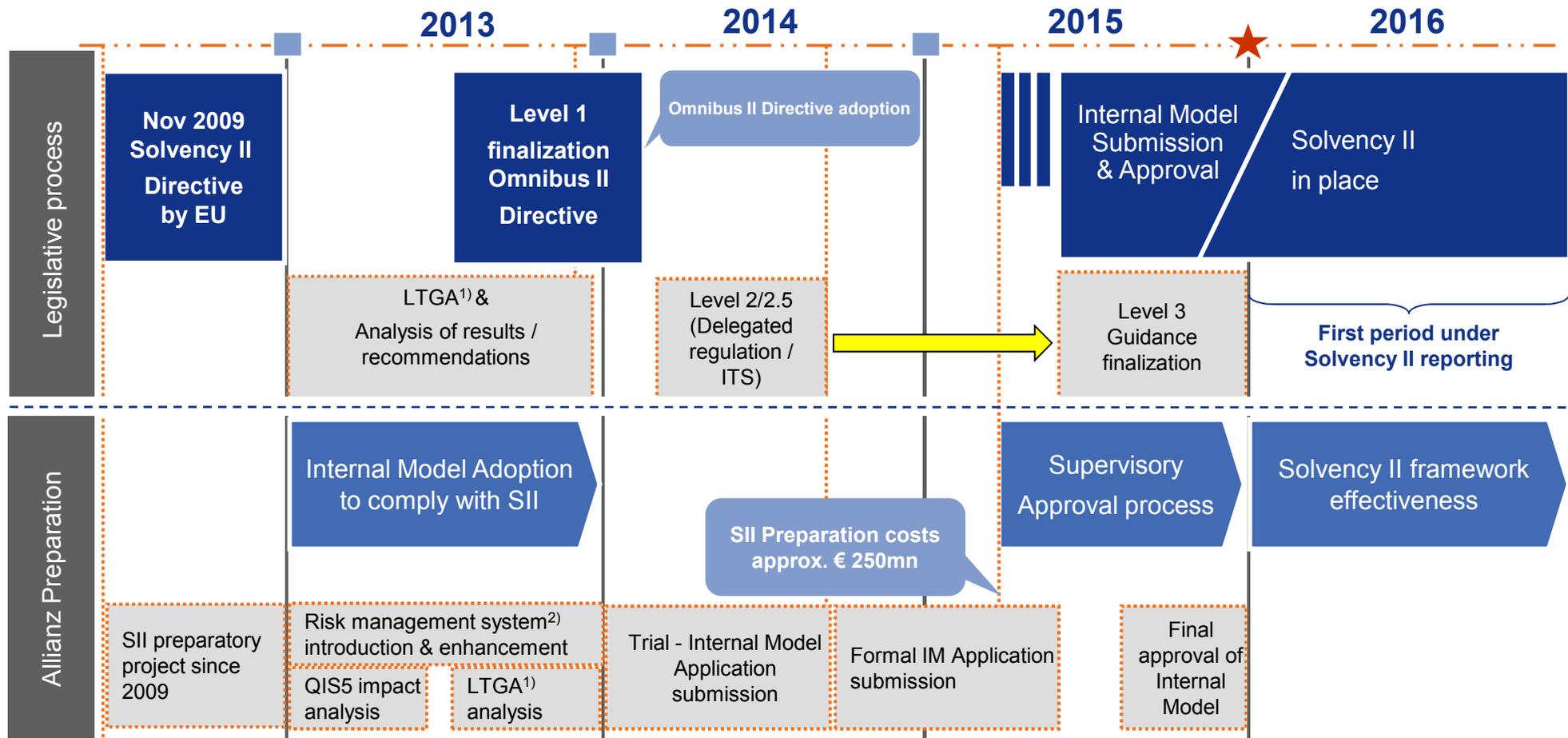
2001-02 Financial Crisis

- Solvency I not risk based, especially on asset side
- Basel II seen as a success in banking

EU Regulatory initiatives

- Solvency II project started in May 2011 - KPMG study & Sharma report
- Convergence to Basel II 3-Pillar System
- Market values of assets and liabilities
- Standard model and internal model
- Level playing field within Europe

Solvency II preparatory timeline



1) LTGA: Long Term Guarantee (Impact) Assessment

2) Financial Risk Capital System for measurement and aggregation (RAI), Risk Report System (ARA, SAP), Operational Risk Governance System (ORGS) etc.

Solvency II Territory (EEA¹⁾ + big sized non-EEA OEs²⁾)



All 27 European Union member states
plus 3 of the EEA countries such as Iceland,
Liechtenstein and Norway

7 Equivalent countries:
Switzerland, Australia, Bermuda,
Brazil, Canada, Mexico and USA

1) Economic European Area
2) Non-EEA OEs: Australia, Korea

Solvency II supervisory authority

Level 1: SII Framework Directives Omnibus II Directive

- European Parliament & EU Council adopted Solvency II Directive on Nov 2009
- Omnibus II Directive enforced by EU Council in May 2014
- The Directive must be transposed into national law in each of 28 member states.

Level 2 & 2.5: Delegated Acts Implementing Technical Standa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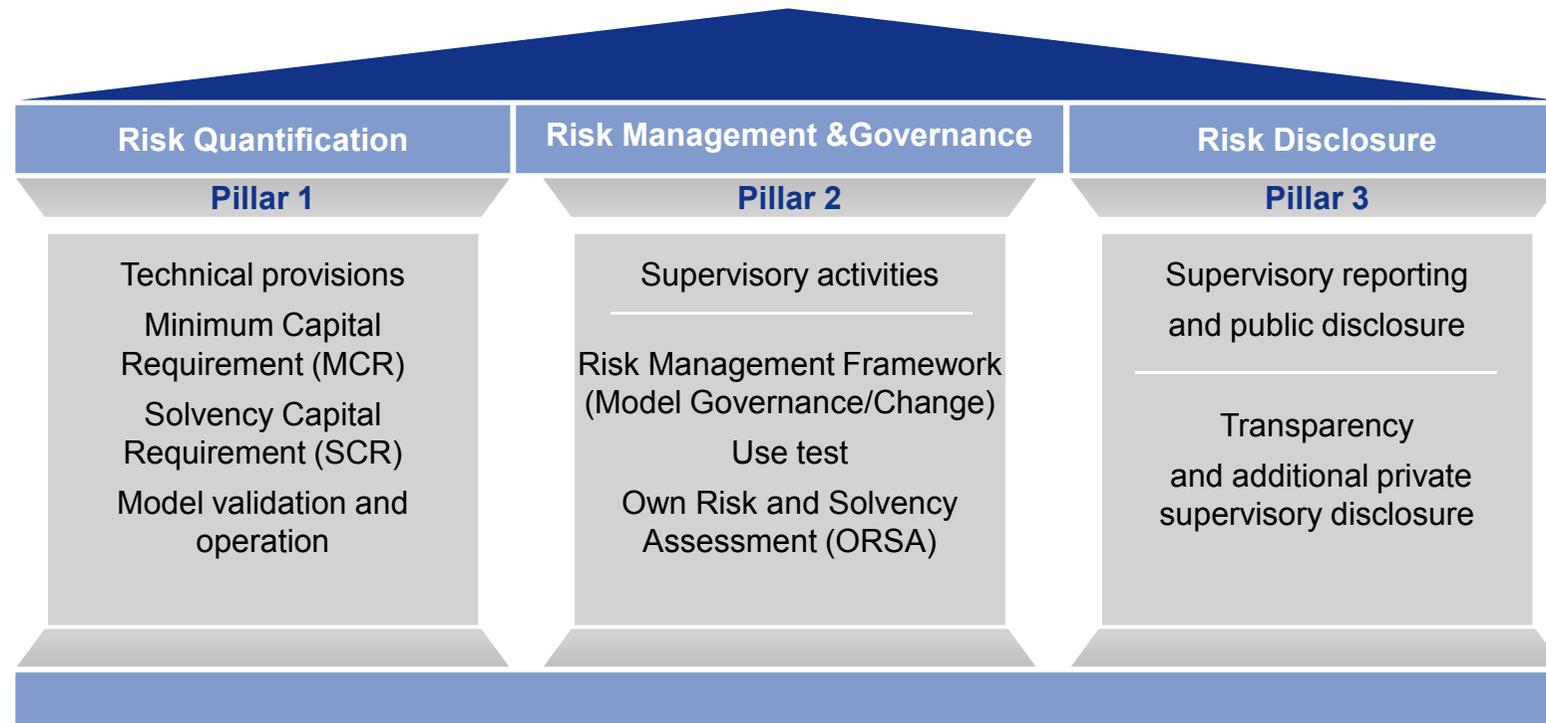
- The European Commission adopted Delegated Regulation containing Solvency II implementing rules in Oct 2014
- Implementing Technical Standards and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will be finalized in 2015.

Level 3: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 In 2015, EIOPA publishes Guidelines for regulatory approval procedures for SII and Internal models in all EU languages
- EIOPA ¹⁾provides Guidelines & Recommendations on how to implement SII detailed provisions.

1)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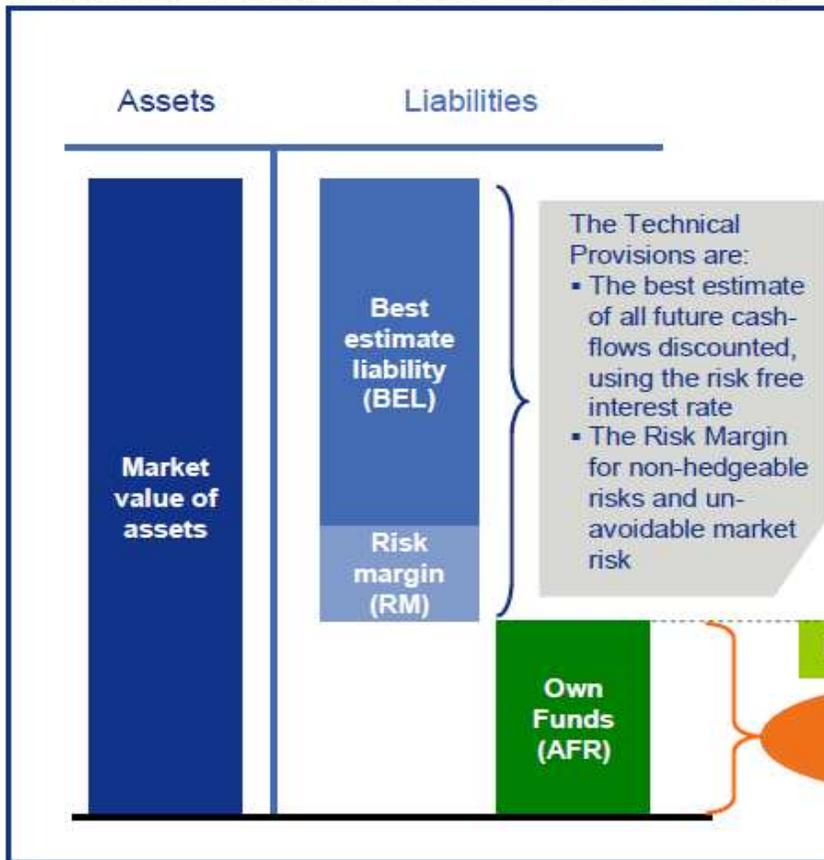
Solvency II – Three Pill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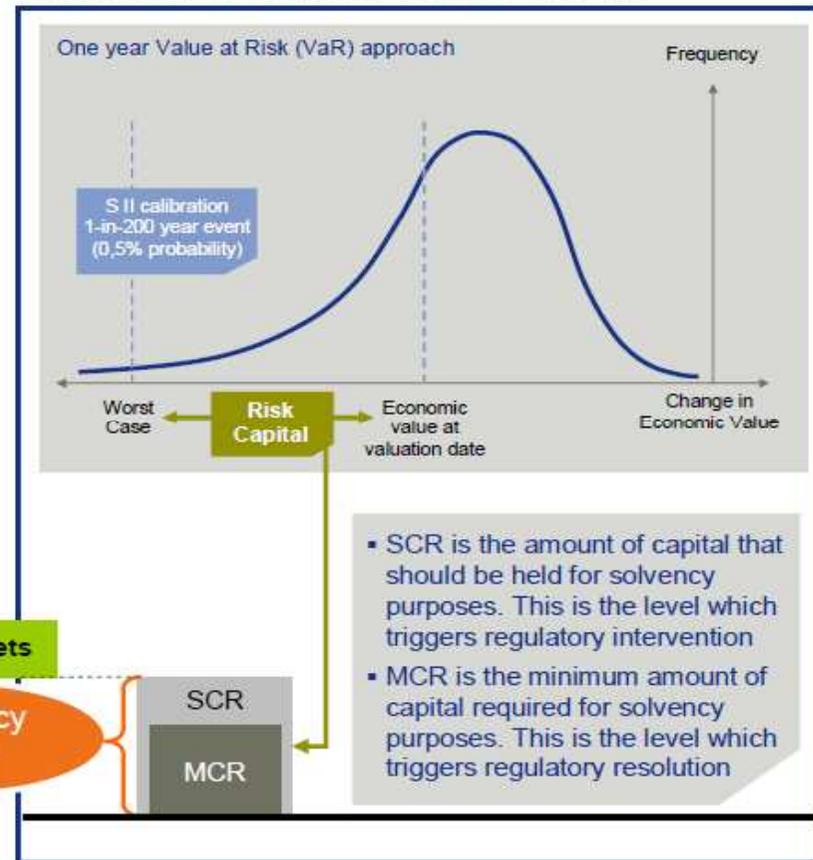
- Principle-based
- Market consistent approach for valuing assets and liabilities
- Capital requirements linked to a company's risk profile
- More significant disclosure requirements

Solvency II – Market Consistent valuation

Solvency II Market Value Balance Sheet



Solvency II Capital Requir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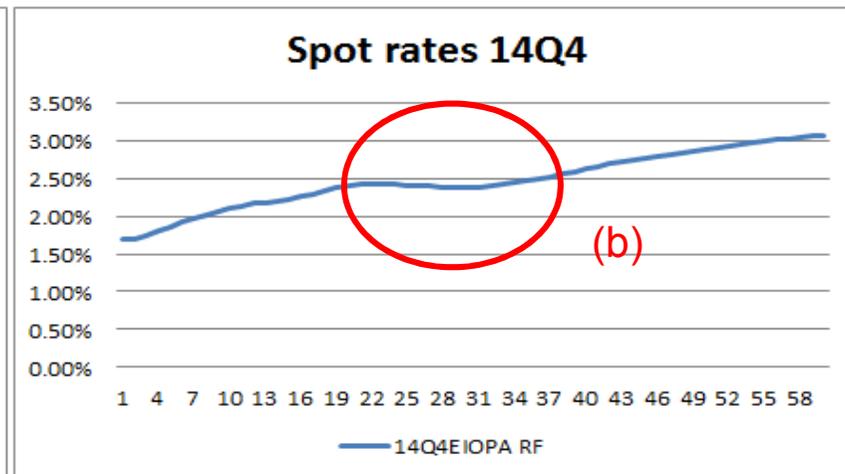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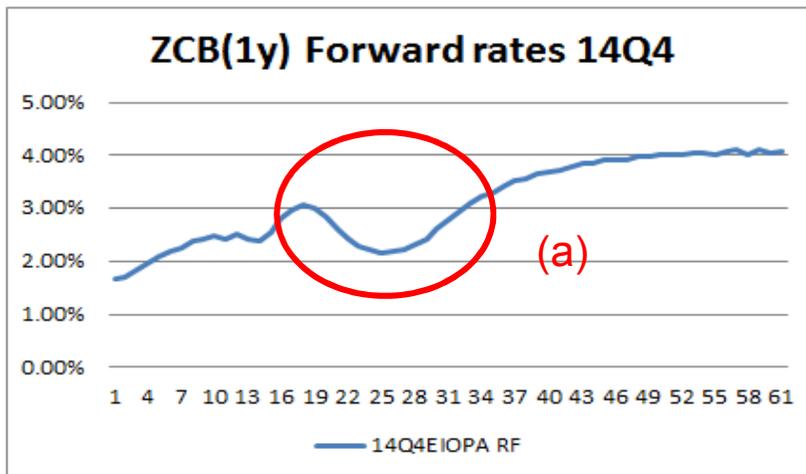


► Solvency II is based on Market Value Balance Sheet

Solvency II – EIOPA’s Risk Free Curve

EIOPA’s risk free interest rate term structure for Korea is specified 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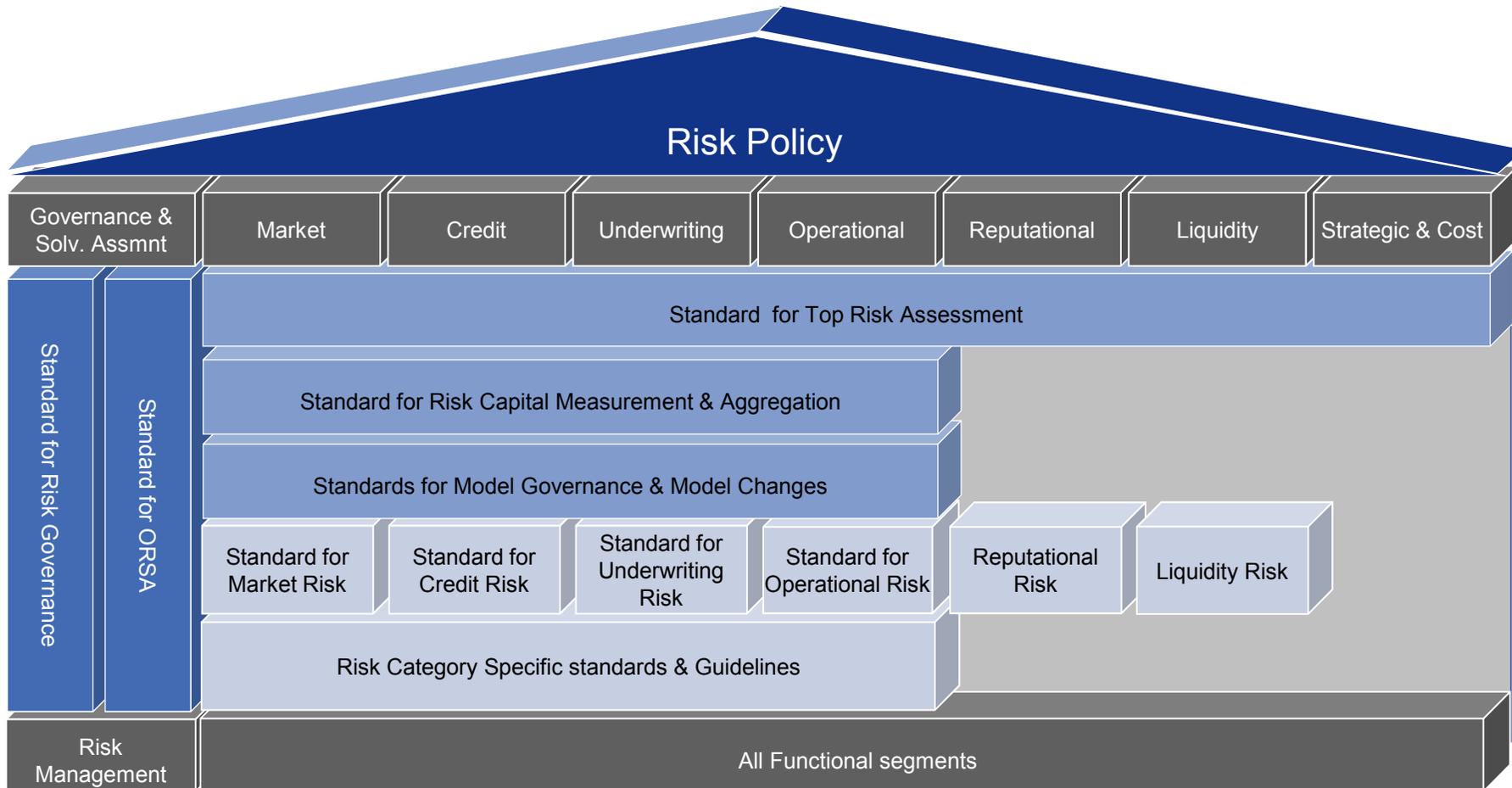
- Based on Interest swap rates. However, IRS market for long-term maturities lacks its representativeness for the financial market of Korea and is systematic distorted.
- On assessment of DLT (deep, liquid and transparent), the last liquid point is set to the year 30 and then the interest rate is converged to the Ultimate forward rate at the year 70.
- Regarding EIOPA interest scenario, it appears to have (a) fluctuations under forward rates and (b) adverse phenomenon between year 20 and year 30 under spot r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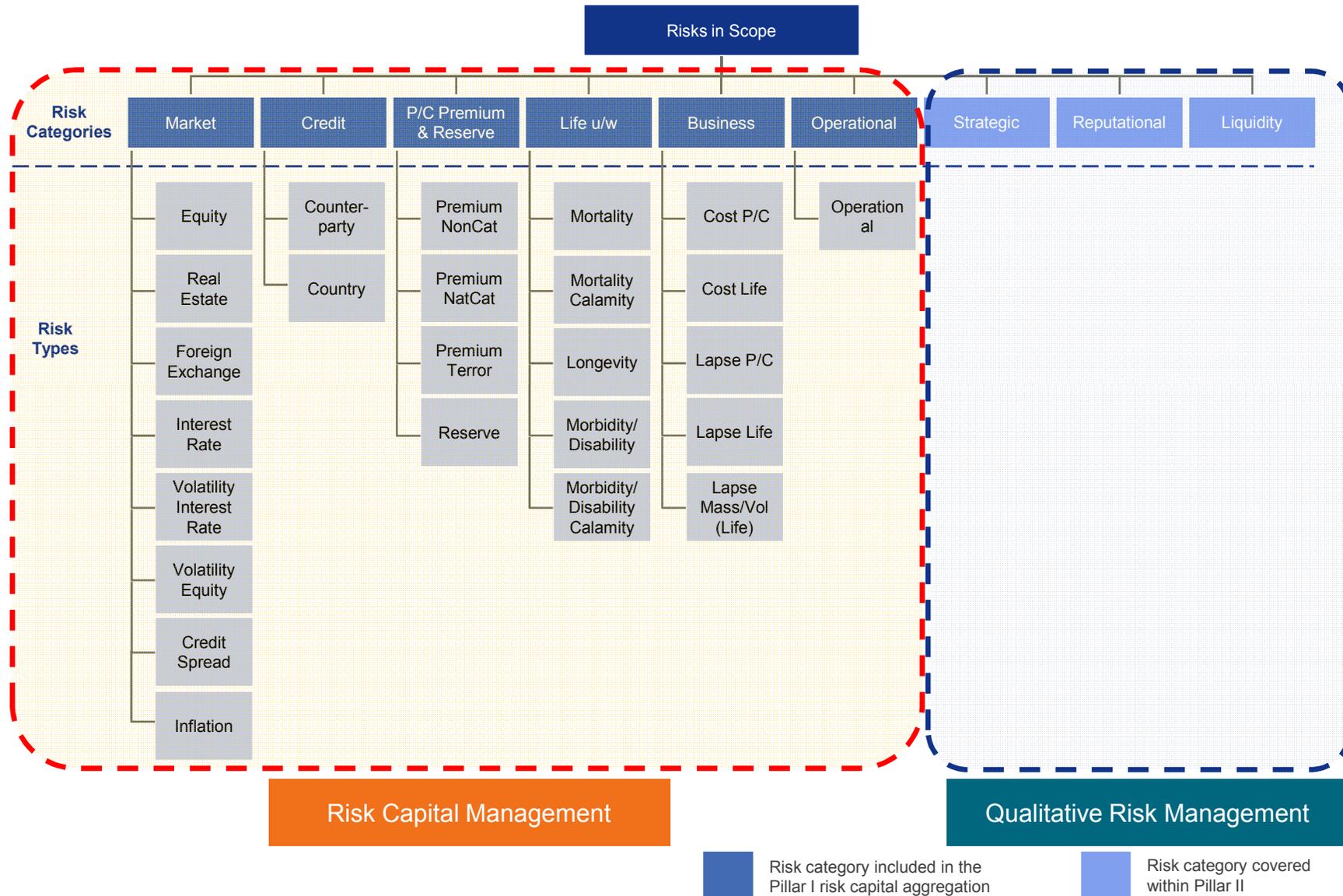
Our proposal is to replace
 “Last Liquid Point of 30 years with Swap” to

- 1) Last Liquid Point of 20 years with KTBs or
- 2) Last Liquid Point of 10 years with Swap

Solvency II – Risk Framework



Solvency II – Risk Coverage



Solvency II – ORSA¹⁾ overview

key points

- Solvency II Project calls for ORSA as annual Risk Management report.
- Risk Management status in all areas including finance, non-finance, compliance, as well as Risk Capital output, and review on adequacy of Risk Capital calculation are covered.
- ORSA report should be approved by board of directors.
- Each year the ORSA report should be completed by 1Q next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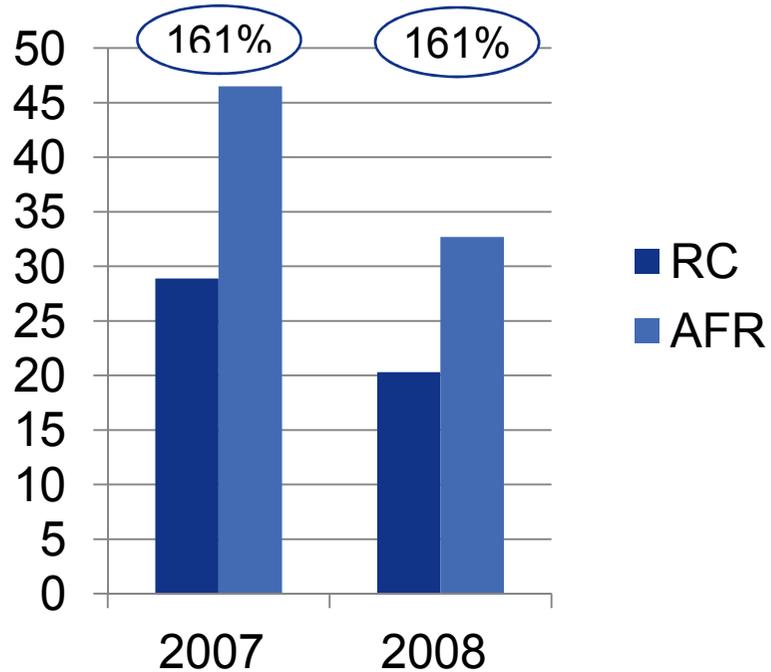
Risk Management Approach & Process	Risk Capital Analysis & Capital Adequacy	Forward looking pl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company Risk Policy ▪ Risk Strategy, Link to Business Strategy ▪ Risk Management Governance ▪ Risk Management Framework by risk ty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tus of annual RC(Risk Capital) ▪ Analysis of P/L attribution based upon MVBS ▪ Result of individual Risk Capital (market, credit, non-market and operation) ▪ Annual TRA(Top Risk Assessment) resul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year outlook for own funds, RC and solvency ratio (including stress scenario) ▪ 3-year financial planning (including capital management and liquidity management) ▪ Risk Management action plan for major managerial decisions

ORSA is the processes and related documentation within the risk framework to ensure solvency needs are met at all times and it is therefore the responsibility of executive mana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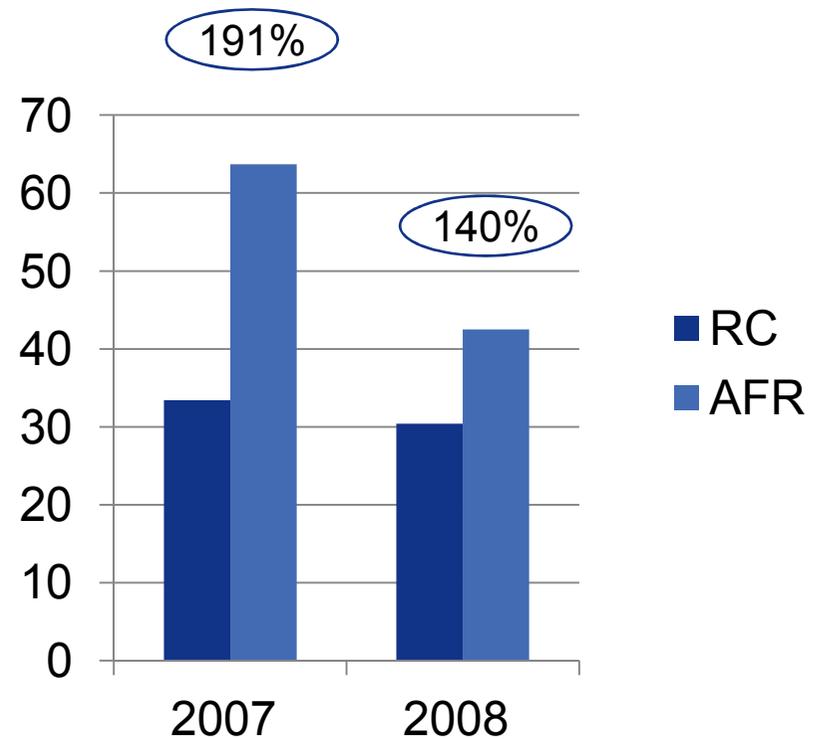
1) Own Risk Solvency Assessment

Implication: Saving Capital but Volatility

Solvency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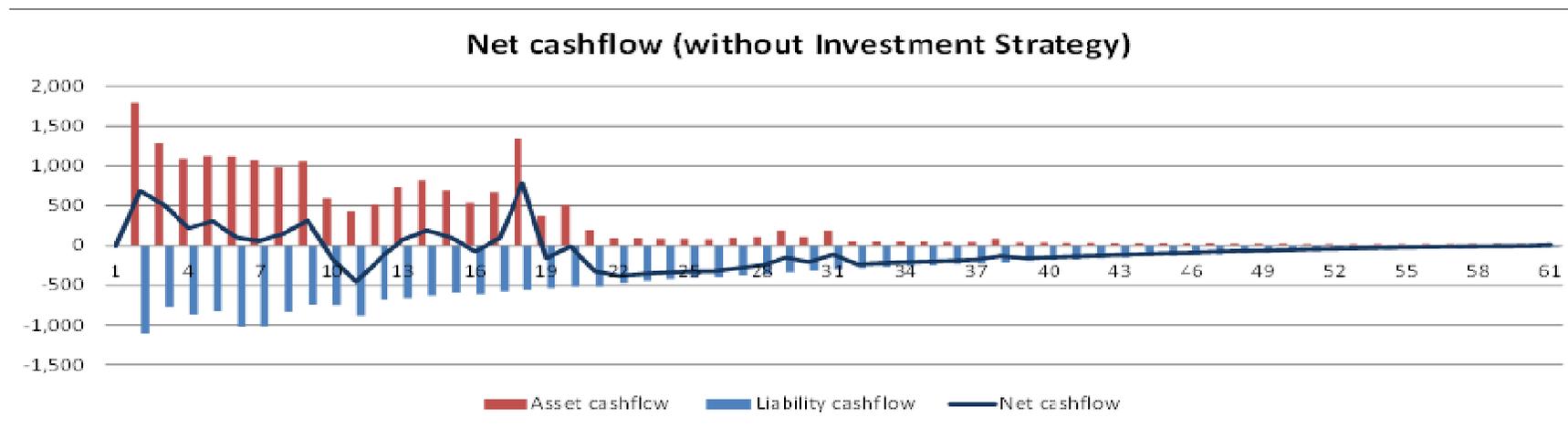


Economic Solvency
SII equivalent



▶ Market consistent solvency regimes inherently more volatile

Implication: ALM mismatch



Net Cash-flow by 5yrs time bucket

(unit: bn KRW)

Time bucket	5yr	10yr	15yr	20yr	25yr	30yr	35yr	40yr	45yr	50yr	55yr	60yr
Net cash-flow	1,823	-93	116	385	-1,179	-1,005	-1,062	-757	-536	-310	-139	-21

Duration Gab on Dec 2014

	Asset	Liability	Duration Gap (unit: year)(A-L)
Solvency II	7.5	11.5	-4.0
RBC	6.6	5.8	+1.0

Implication: Asking the right questions...

Risk Communication

- Are we effectively communicating to regulators, rating agencies and analysts?
- Are the capital requirements and valuations appropriate ?

Risk Strategy and Appetite

- Is our Risk Strategy & Appetite consistent with our Business Strategy ?

Risk Controlling and Reporting

- Is our risk profile transparent to management ?

Risk Underwriting & Management

- Are the risks we want appropriately structured, priced and underwritten ?
- Are risks we do not want identified, evaluated and mitigated ?

Implication: ...using the Internal Model

✓ Supported by Internal Model

Risk Communication

- Regulatory reporting, Pillar I and III
- IFRS Risk Paragraph
- Rating agency and analyst communication



Risk Strategy and Appetite

- Risk strategy and risk appetite
- Capital management and solvency targets; Return on capital targets
- Risk-based incentives



Risk Controlling and Reporting

- Risk and solvency profile reporting
- Limit reporting



Risk Underwriting & Management

- New product approval process, RoRC pricing
- Asset / Liability Management, PC Investment RoRC
- Reinsurance optim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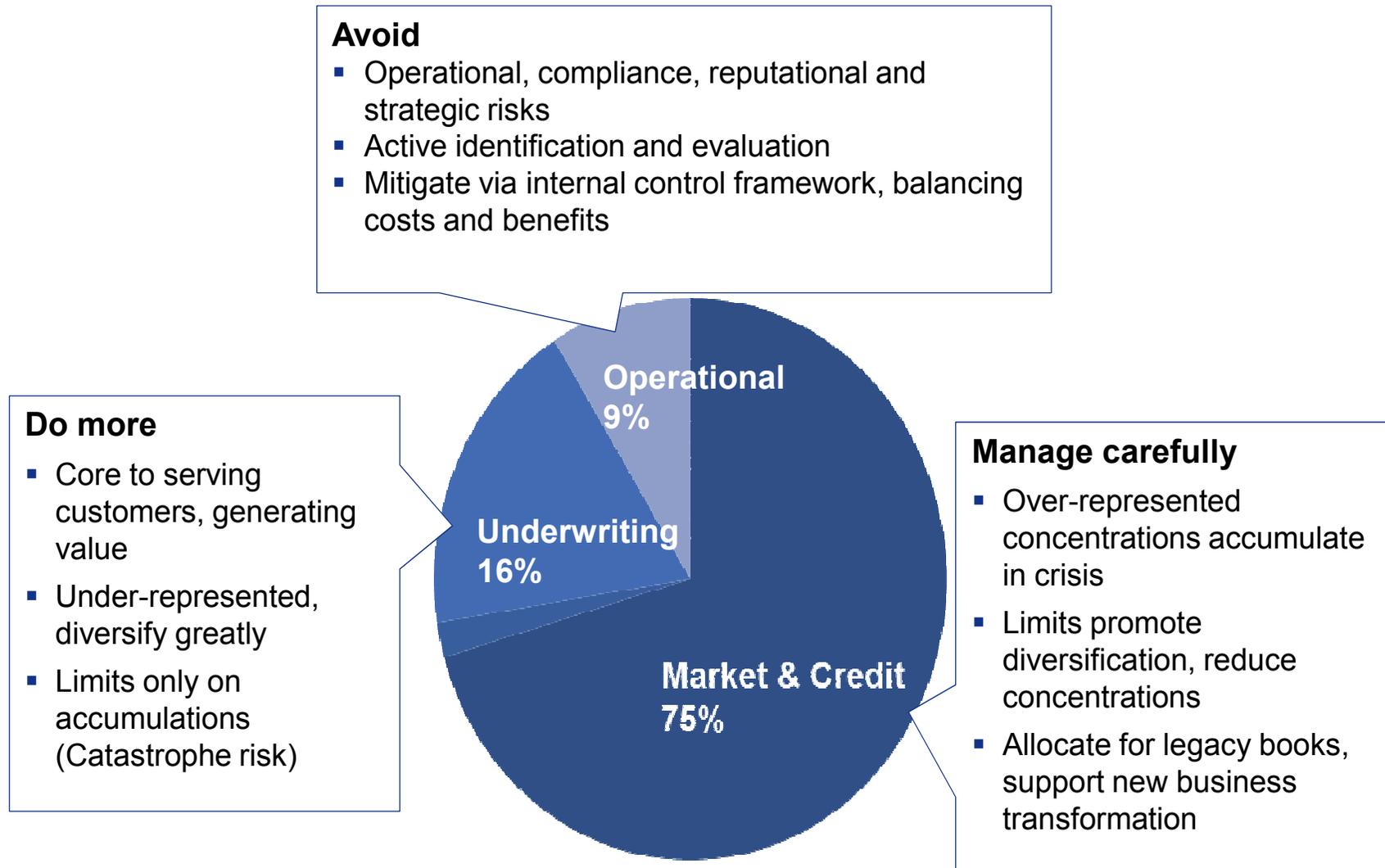


Risk and Business strategy

Investments	Life and Health business	Capital allocation	Strategic initiativ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lance risk and returns to support legacy guarantees • More granular ALM Optimizations • Greater cash flow matching • Optimize the strategic asset allocation • Ensure adequate diversification / limit concentr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w business focus on capital- & interest rate-light products ▪ Balance customer promise and shareholder value ▪ Manage legacy business to improve value 	<p>Achieving target RoE: implications for capital steering including Life new business and in-force management</p>	<p>Strategic initiatives 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gitalization • Distribution • Portfolio management

▶ Majority of the issues listed above not only for Allianz.

Risk and Business strategy



And now it's time for your question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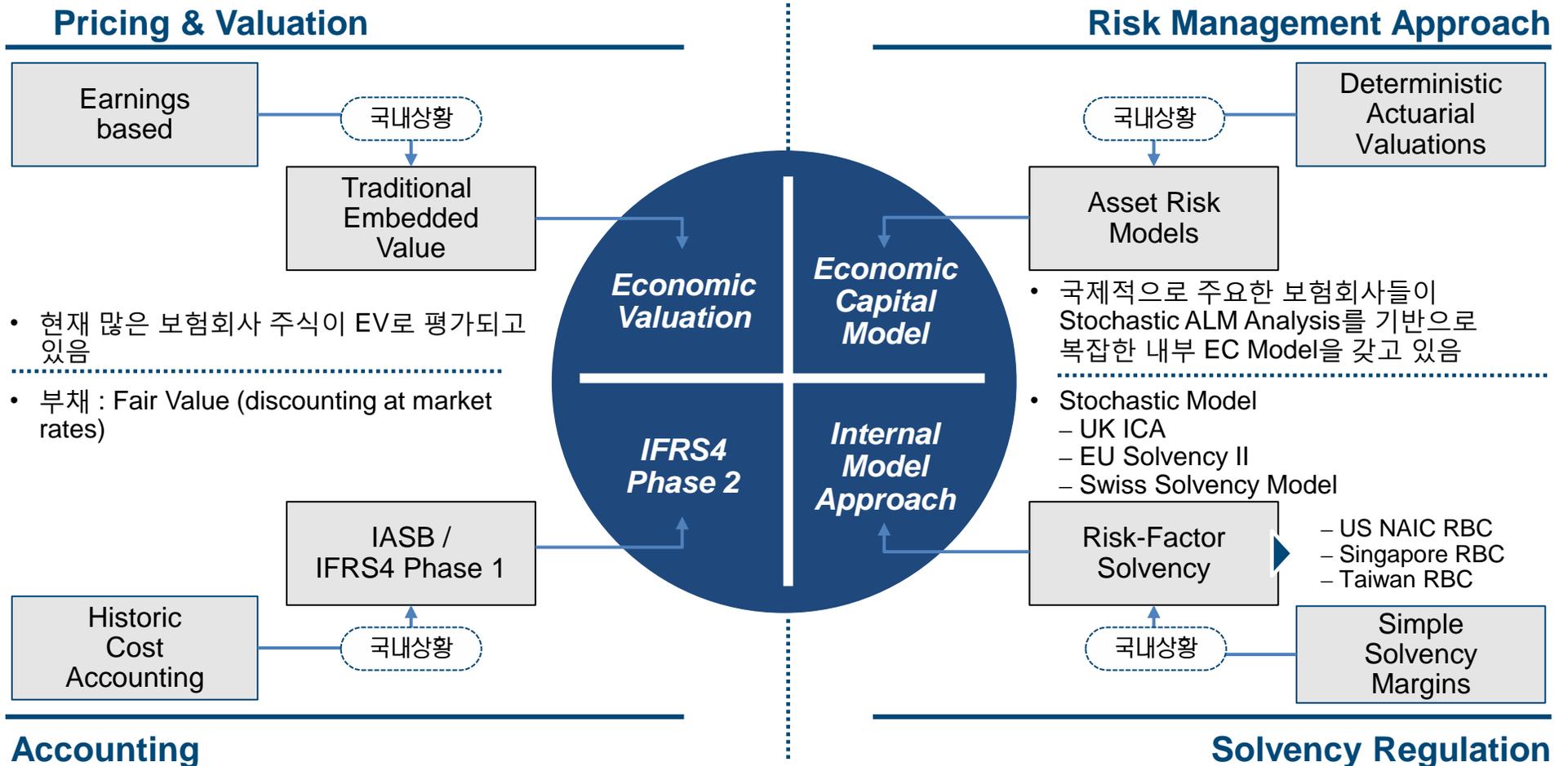
캐나다 지급여력 감독제도와 회계제도의 시사점

October 21, 2015

Presentation by
안치홍 대표

보험환경의 변화방향 (Global Trend)

대외적 요구 - 변화의 방향은 Fair Value방향으로 수렴



캐나다의 대응 방안

- I. 국제회계기준(IFRS4)를 도입
- II. 회계일원화 유지 (감독회계 = 일반회계)
- III. 지급여력제도(MCCSR)의 개선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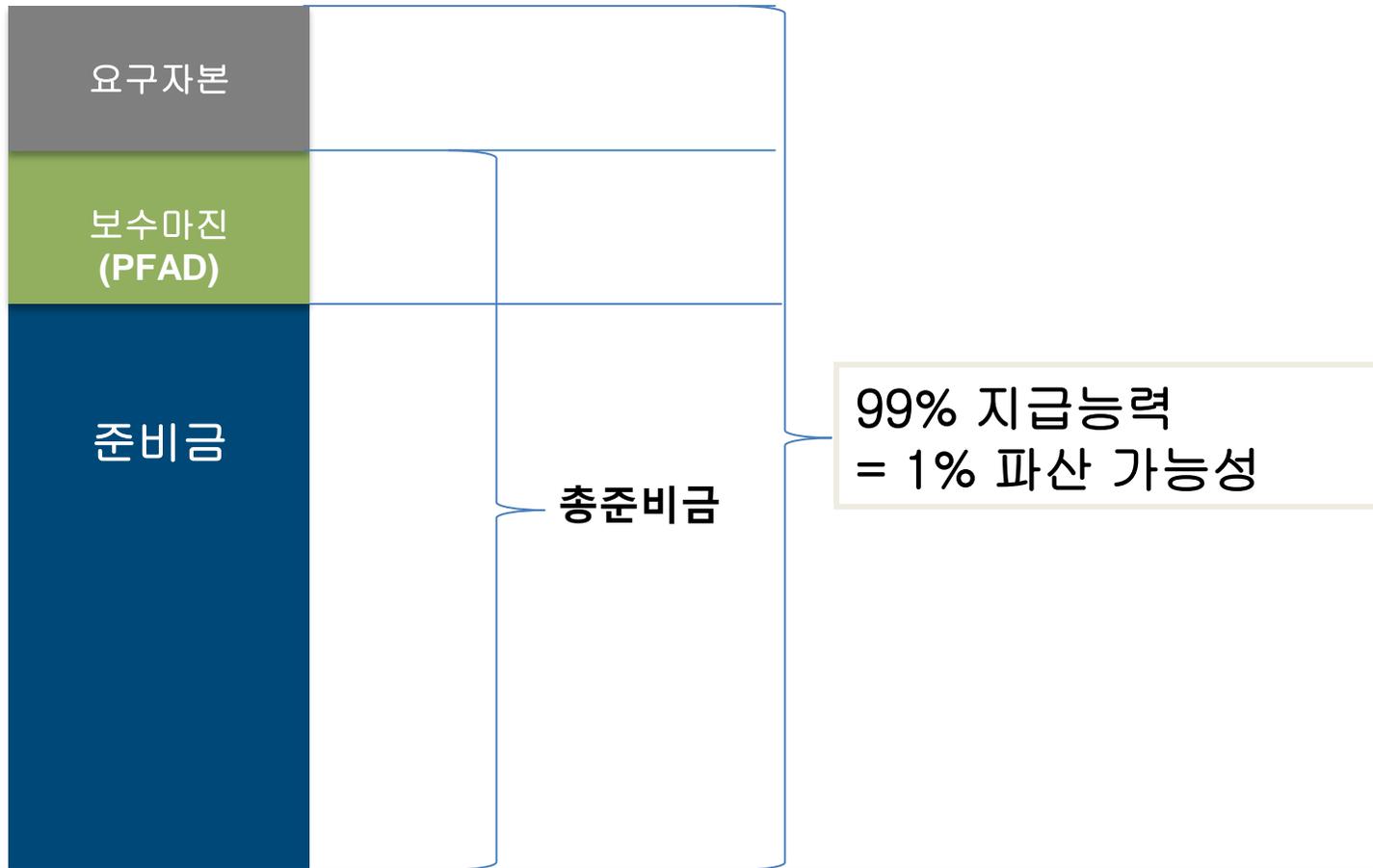
캐나다와 미국의 차이

- I. 보험사의 관련 감독이 연방수준 (OSFI)
- II. 회계제도의 일원화를 1992년에 실현 (PPM)
- III. 지급여력제도(MCCSR)의 도입과 DCAT 제도

캐나다 지급여력제도의 기능

- 재무건전성 = 지급여력
- 지급여력: 보험계약자에게 미래의 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
- 지급여력 구성요소:
 - ✓ 책임준비금
 - ✓ 보수성 마진을 위한 준비금 (**Provision for Adverse Deviation**)
 - ✓ 요구자본 (**Required Capital**)

캐나다 지급여력제도의 기능: 각 요소의 분담



캐나다 요구자본: MCCSR

- 생보 : 최소요구 자본은 다음의 합과 같음
 - 자산리스크
 - 보험요율리스크
 - 금리리스크
 - 금리환경변화리스크
 - 해약리스크
 - 특별계정자금리스크(**Segregated fund risk**)

- 손보 : 최소요구 자본은 다음의 합과 같음
 - 대차대조표상 자산을 위한 자본
 - 미경과보험료와 미지급보험금을 위한 마진
 - 대재난 준비금과 추가 적립금
 - 미등록 재보험사에 할당된 재보험금
 - 부외거래에의 노출을 위한 자본

“가용자본(Available Capital)”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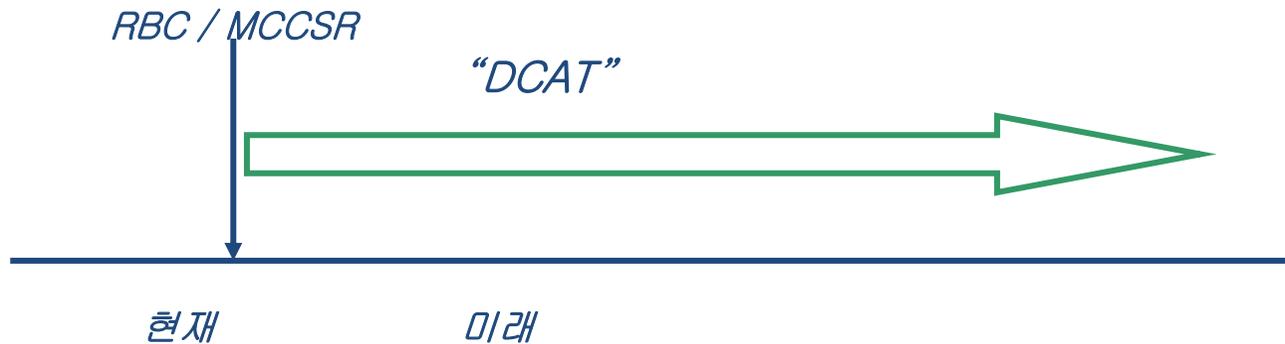
- 대차대조표로 시작: 대차대조표 상의 잉여금
- 대차대조표 요소들의 **100%** 이하로 조정: 가치 감액 (시장가치 반영)
- 가용자본 = ‘Tier 1’자본 + ‘Tier 2’자본
 - ✓ Tier 1(Core Capital): 핵심자본, 양질의 자본, 영구성
 - ✓ Tier 2(supplementary capital): 추가자본, 비영구성 (예: 후순위채)

■ **MCCSR(or MCT) ratio = 가용자본 / 요구자본**

역동적자본적정성검증(DCAT)

- **MCCSR 제도의 한계점**

- ✓ 정해진 날짜에서의 자본적정성 검증 측정 (회계연도 / 분기)
- ✓ 대부분의 위험요소들은 “업계평균 위험”으로
- ✓ 특정한 회사의 독특한 환경을 놓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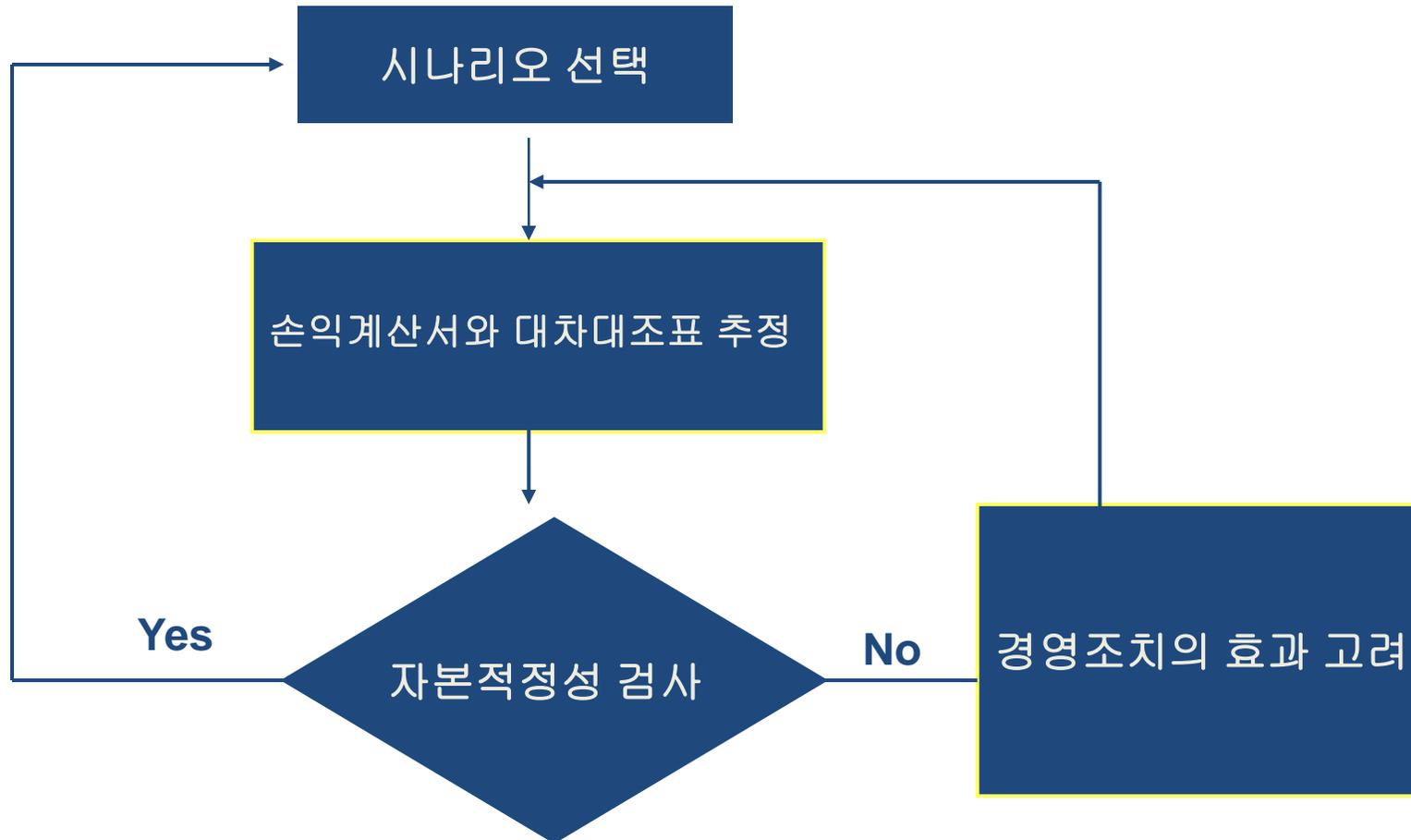
- **캐나다금융감독원(OSFI)의 DCAT의 도입 이유**

- ✓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해하고
- ✓ 미래의 잠재적인 자본적정성 위기의 “조기 경보” (early warning system) 를 제공

DCAT의 목표와 프로세스

- 보험사의 재무전전성을 예측되는 다양한 역편차 시나리오 (Adverse Scenario) 하에서의 검증
- 기본시나리오 - 회사의 경영계획과 일치
- “Stress-testing” - 추정기간 동안 회사의 잉여금(Surplus)을 제거하기 충분할 정도의 위험요소
- 역편차(보수적) 시나리오(Adverse scenario)의 선택 – 영향이 큰 순서로 최소한 3개의 위험종류를 선택
- DCAT 보고서의 포함내역
 - ✓ 위험 종목에 관한 구체적인 서술
 - ✓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올 수 있는 상황
 - ✓ 어떤 파장효과 (ripple effects) 발생할 수 있는지
 - ✓ 어떻게 파장들이 고려되었는지
 - ✓ 어떤 경영조치가 필요한지
 - ✓ 결과의 가능성(plausibility)

기본적인 시나리오 테스트



선임계리사 의견 (통합업무규정)

■ Consolidated Standards Opinion:

“I have completed my annual investigation of the financial condition of [the company] as at [date] in accordance with accepted actuarial practice.

I have analyzed the forecasted financial positions of the company during the [number] year forecast period under a series of scenarios. A description of these scenarios and their impact on the company is included within this report.

“The analysis incorporates assumptions relating to business growth, investments...and other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during the forecast period as well as potential management responses to various plausible adverse scenarios. The most significant assumptions are described in the report.

In my opinion, the financial condition of the company is satisfactory under these assumptions.”

캐나다 자본정책에 대한 방향

- 자체의 **MCCSR**제도를 개선하여 **Solvency 2** 제도에 준하는 제도로 발전
- 캐나다가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이유
 - ✓ 기존의 **MCCSR**제도가 **Solvency 1** 제도 보다도 월등하고
 - ✓ 어느 정도만 개선을 하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
 - ✓ 회계제도와는 다르게 자본정책은 캐나다 보험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 정책진행에 유리함
 - ✓ 기존의 **MCCSR**이 이미 **Solvency 2**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음

시사점

- 회계제도와 자본정책은 차별화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함
 - ✓ 미국과 같이 두 개의 회계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일 수 있음
 - ✓ 회계제도는 국제적인 동향을 충분히 반영하고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회계제도 (CALM) 방식이 IFRS4와 많은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 그러나 자본정책은 국가의 정책과 관련이 있으므로 회계제도와는 달리 가져가는 것이 유리함
 - ✓ 자본정책을 유럽과 같이 통합된 “Solvency 2”로 가는 것은 개별국가인 캐나다의 입장에서는 감독정책에 혼동을 줄 수가 있음

Thank you!





재무건전성 규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내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방향

2015. 10. 21.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진태국

〈목 차〉

I . RBC 현황

II . 재무건전성 규제환경의 변화

1. 국제적인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강화 추세
2. IFRS4 2단계의 도입
3. 재무건전성 로드맵 지속 추진

III . 재무건전성 감독방향

1. 국제적 정합성 제고
2. IFRS4 도입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한 사전대비 철저
3. 재무건전성 선진화 로드맵의 지속 이행
4.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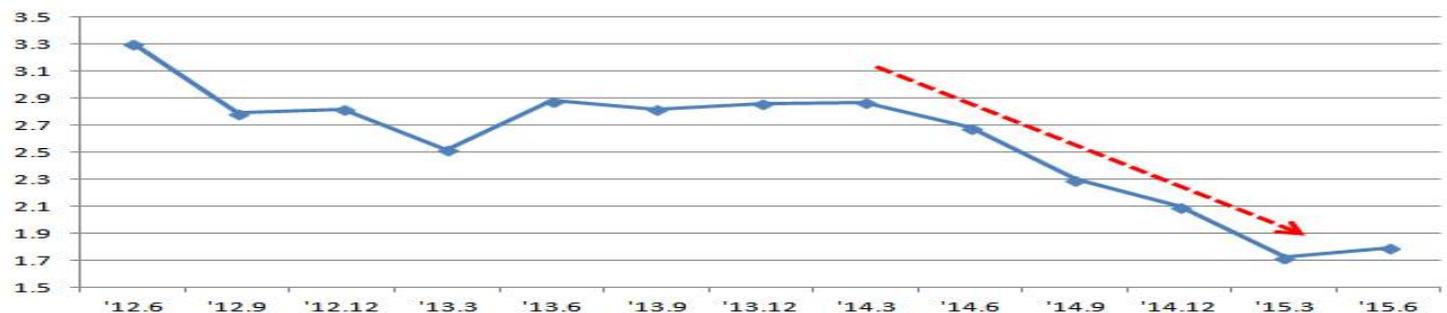
I . RBC 현황

- '15.6월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은 278.2%로 보험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건전성 기준(100%)을 크게 상회
- 금리 변동에 따라 가용자본(채권평가손익)이 크게 변하면서 RBC비율에 큰 영향(☞ '14.3월 이후 저금리 지속에 따라 RBC비율 상승 추세)

(RBC비율 추이)



(국고채 3년물 추이)



Ⅱ. 재무건전성 규제환경의 변화

1. 국제적인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강화 추세

-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대형 보험회사(AIG)의 연쇄파산 등으로 재무건전성 감독 강화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
 - 이에 따라 국제 감독기구(IAIS, FSB) 및 각국 감독기관은 금융위기시의 '대마불사(TBTF)' 문제 해소를 위해 재무건전성 감독 강화를 추진중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 (G-SII 정책)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G-SII)에 대한 평가방법론 및 정책수단 보고서를 발표('13.7월)하고,
 - G-SII에 적용할 공통의 자본요건인 기본요구자본(BCR, '14.11월) 및 추가요구자본(HLA, '15.11월 예정) 기준서 등을 발표

- 또한 보험권의 시스템 리스크 원천(driver)인 비전통·비보험(NTNI)의 개념을 명확화하기 위한 가이드스 마련을 준비중('16년 공표 예정)
- (ICS) G-SII보다 확대된 국제보험그룹(IAIG*)에 적용할 국제 보험자본기준(ICS: Insurance Capital Standard)을 '20년 시행을 목표로 제정중
 - * (IAIG 요건) ①3개국 이상 영업, ②총수입보험료 중 해외 수입보험료 비중이 10% 이상, ③총자산 500억달러 이상 또는 총수입보험료 100억달러 이상
- ICS의 특징은 ①보험부채 시가평가, ②그룹(연결)기준 지급여력제도, ③정교한 리스크 측정방식 채택 등

<해외 감독기관 동향 : 유럽>

- 새로운 건전성 감독제도인 Solvency II (①보험부채 시가평가, ②연결기준 지급여력제도, ③정교한 리스크 측정방식 채택)를 '16년부터 도입할 예정
- 정량적 측면인 Pillar1(최저 지급여력규제)과 함께, 보험회사의 자체 리스크 관리 등을 강조하는 ORSA*(Pillar2)도 함께 시행할 예정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2. IFRS4 2단계의 도입

◆ IFRS4 2단계 도입('20년 예정)시 보험부채 시가평가로 보험사의 경우 상당한 규모의 부채를 추가적립할 것으로 예상

□ **(도입 영향)** 부채규모가 현행보다 크게 증가(자본 감소)하여, 생보사를 중심으로 재무건전성이 현재보다 크게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

○ 특히 과거 판매한 고금리(5% 이상) 상품비중*이 큰 생보사의 경우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상당한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

* 보험부채(책임준비금) 기준 : (생보) 30.8%(143.1조원), (손보) 2.7%(3.4조원)

□ **(현 제도 한계)** 부채 원가평가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는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수익을 시현하며 건전성 부담(RBC비율) 없이 배당 가능

○ IFRS4 도입시 재무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현재 시점에 내부유보 등 선제적인 자본확충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

<참고>

보험회사 상반기 이익 구성 및 채권처분이익 추이

1. 보험회사 상반기 이익 구성

- 생손보 모두 FY15중 투자영업이익이 전년대비 큰 폭 증가

(단위: 억원, %)

구 분		'14년 상반기(A)	'15년 상반기(B)	증감(C=B-A)	증감률(C/A)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19,958	27,990	8,032	40.2
	보험영업이익	△100,570	△97,458	3,112	-
	투자영업이익	108,180	112,409	4,229	3.9
	영업외손익	16,935	18,882	1,947	11.5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14,402	16,750	2,348	16.3
	보험영업이익	△7,192	△12,399	△5,207	-
	투자영업이익	27,383	33,278	5,895	21.5
	영업외손익	△1,024	987	2,011	-
계	당기순이익	34,360	44,740	10,380	30.2

2. 채권처분이익(매도가능계정) 추이

- 매도가능계정 채권처분이익은 FY15중 전년대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

(단위: 억원)

구 분	FY10	FY11	FY12	FY13(연환산)	FY14	FY15.上
생보사	4,097	5,560	10,411	11,387	8,867	7,327
손보사	1,578	2,405	4,608	3,568	2,812	2,314
합계	5,674	7,965	15,019	14,955	11,679	9,641

3. 재무건전성 로드맵 지속 추진

◆ 국내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및 보험산업의 국제 신인도 제고를 위해 '14.7월 재무건전성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중

재무건전성 선진화 로드맵 주요과제

추진된 사항	추진예정 사항
①금리리스크 신뢰수준 강화('14.12월)	①신용리스크 신뢰수준 강화('15년~'16년)
②리스크간 상관계수 정교화('14.12월)	②연결RBC제도 도입('16년)
	③운영리스크 정교화('16년)
	④보험부채 듀레이션 확대('16년~'17년)
	⑤ORSA 도입('17년)
	⑥장수리스크 도입('18년)
	⑦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18년 이후) 등

□ (로드맵 이외의 제도개선) 로드맵 마련시 고려되지 못했던 제도개선 과제 등도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추진될 필요

* 예시: (현행) 위기상황분석 회사별 자율운영 → (개선) 위기상황분석 규정화

Ⅲ. 재무건전성 감독방향

- 기본 방향 -

국내 RBC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및 신뢰성 제고 노력 지속

국제적 정합성 제고

- ① ORSA 제도 도입
- ② 연결RBC 제도 도입
- ③ 재무건전성 관련 국제 감독기준 제정 대응
- ④ 부채 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 연구

IFRS4 도입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한 사전대비 철저

- ① LAT제도 정교화
- ② 금리리스크 측정기준 강화
 - 보험부채 듀레이션 확대
 - 금리역마진리스크 강화 등
- ③ 자본증권 발행요건 완화
- ④ 자율적 자본확충 유도

재무건전성 선진화 로드맵의 지속적 이행

- ① 신용리스크 신뢰수준 상향(95%→99%)
- ② 장수리스크 도입
- ③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
- ④ 운영리스크 정교화
- ⑤ 위기상황분석 규정화

1. 국제적 정합성 제고

①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도입

- RBC 등 정량적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회사가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수준 및 체제를 확립하고, 감독당국이 동 평가 및 관리체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정성적 규제체계(ORSA^{*})를 도입('17년)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보험회사 자율도입으로 추진 예정**('16년중 ORSA 도입을 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17년부터 RAAS 비계량평가 등을 통해 ORSA의 적정성을 평가)

② 연결RBC 제도 도입

- 보험회사(모회사)의 RBC비율 산출시 “자회사”의 리스크도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연결RBC 제도 도입('16년)

③ 재무건전성 관련 국제 감독기준 대응

- ICS가 향후 지급여력의 국제표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바, 기준 제정 초기 단계부터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반영*

* ICS 기준 제정을 위한 필드테스트에 국내사를 참여시키고, 관련 회의에 지속 참석

- NTNI 논의 등을 참고하여, 국내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상품·투자 등에 내재된 시스템리스크 기여도를 평가하고, 필요시 정책수단을 마련

④ 부채 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 연구

- RBC 리스크 측정방식 등이 IFRS4와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제도개선 추진
- 해외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 사례(ICS·EU Sol2·SST·캐나다)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제도개선 방향 설정 등에 참고

2. IFRS4 도입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한 사전대비 철저

① 부채 적정성 평가제도(LAT) 정교화

- IFRS4 2단계의 도입 연착륙을 위하여, 현행 LAT(Liability Adequacy Test)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정교화*

* 시장금리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② 금리리스크 측정기준 강화

- 부채의 실질만기를 고려하여 보험부채 듀레이션을 현행 최장 20년에서 30년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 저금리 지속으로 인한 건전성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금리역마진 위험액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 (* 단, LAT의 단계적 정교화 정도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영향분석 하에 추진)

3] 자본증권 발행요건 완화

- 자본성이 우수한 신종자본증권의 상시발행을 허용하고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는 비율(15%→25%*)을 확대

* 은행의 경우 조건부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기본자본 인정비율이 자기자본 대비 33%이나, 보험권은 비조건부인 점을 감안하여 인정비율을 이보다 낮게 설정

- 또한 금리변동에 따른 영향 및 제도강화 효과(예: 신용리스크 신뢰수준 강화)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 지급여력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보험회사에 대해 후순위채권 발행을 허용

4] 자율적 자본확충 유도

- '16년 상반기중 IFRS4 기준서가 확정될 경우, 이에 상응하여 보험회사의 자율적 자본확충 노력 강화 유도*

* 다만, 자율적 자본확충 노력이 미약할 경우 자본보전완충자본제도 등으로 보완

3. 재무건전성 선진화 로드맵의 지속 이행

① 신용리스크 신뢰수준 강화

- 신용리스크 측정시 적용되는 통계적 신뢰수준을 상향(95%→99%)*하여 보험 회사의 건전성 지표 기준을 강화(동일 위험에 대해 더 많은 자본량을 요구)

* 자본이 부족할 확률(빈도) : (현행) 20년에 1번 → (개선) 100년에 1번

② 장수리스크 도입

-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를 RBC 산출시 반영하는 방안 검토

③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

- RBC비율 산출시 보험회사의 자체 통계 및 모형 등에 근거하여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는 “내부모형”을 도입

- ORSA 도입 후 내부모형을 3년 이상 운영*한 회사만 내부모형에 대한 승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등 ORSA 운영과 연계

* 내부모형 승인을 위해서는 모형 적정성 및 활용 여부 등을 검증해야 하므로 최소 3년간의 내부모형 운영결과가 필요

4] 운영리스크 정교화

- RAAS 비계량평가결과에 따라 운영리스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예시: RAAS 비계량평가등급에 따라 운영리스크 위험계수를 5단계로 차등화하는 방안

5] 위기상황분석 규정화

- 위기상황분석(현재 '자율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시주기, 실시방법, 결과활용 등을 규정화('15년)

4. 기 타

□ 직접규제 폐지(예정)에 따른 간접규제 보완

- 외국환, 파생상품, 동일인 투자 등에 대한 집중리스크를 신설하여 RBC 요구자본에 반영 (※ 집중리스크 부과기준(threshold)은 현행 직접 규제 한도를 준용할 예정)

◆ (참고) 자산운용 직접한도 규제 폐지(예정)의 주요내용

- (배경) 외국환·파생상품 및 동일인 유가증권 투자 등에 대한 보수적인 직접 한도 규제로 인해 해외 투자·진출시 애로 존재
- (주요내용) 자산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외국환, 파생상품 및 동일인 유가증권 투자 등에 대한 한도규제***를 폐지 예정(法)

* ①동일 개인·법인의 신용공여(총자산 3%), ②동일 법인의 채권·주식(총자산 7%), ③외국환(총자산의 30%), ④파생상품(총자산의 6%), ⑤부동산(총자산의 25%)

- 다만, 대주주 및 관계회사에 대한 직접한도 규제는 유지

Q & A

kiri

국내 보험회사에 대한 영향분석

2015.10.21

조재린

목 차

- I. 서론
- II. 시가기준 지급여력평가
- III. 국내 보험회사 영향분석
- IV. 결론 및 시사점





I. 서론

II. 시가기준 지급여력평가

III. 국내 보험회사 영향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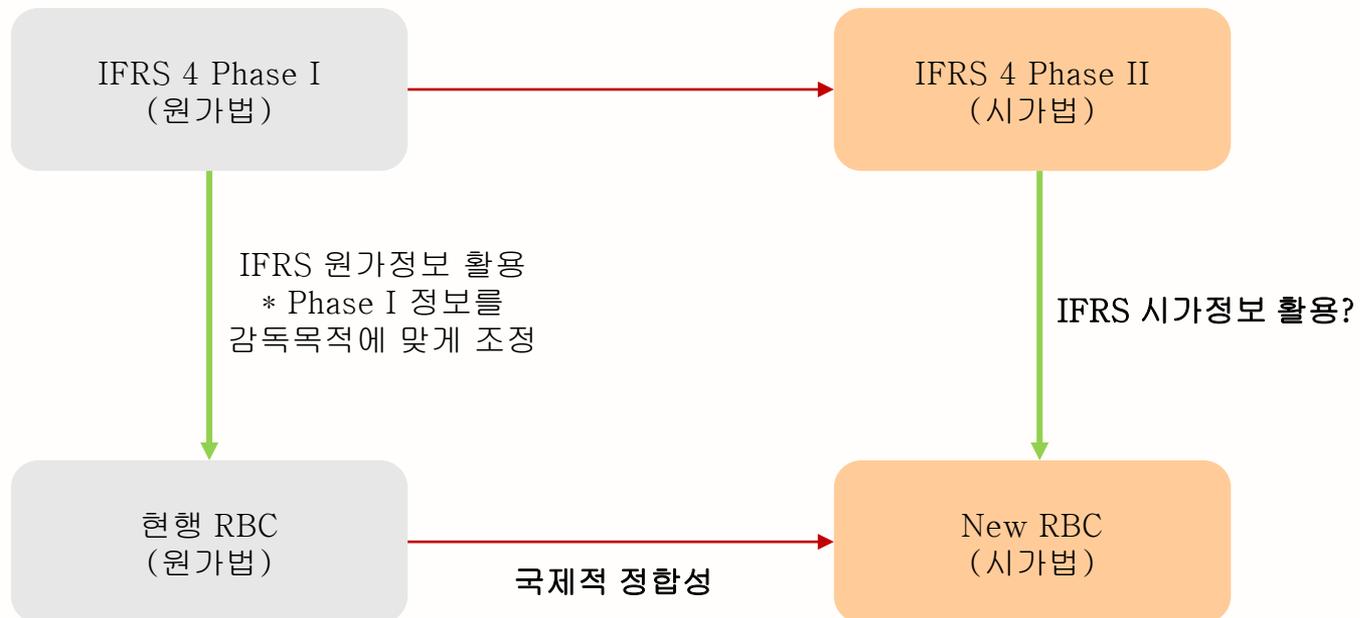
IV. 결론 및 시사점





➤ 시가에 기초한 지급여력평가제도

- IAIS ICP(Insurance Core Principles)는 감독자가 시가에 기초하여 지급여력을 평가할 것을 요구
 - 현행 RBC 제도는 IFRS 4 Phase I 회계정보를 활용한 지급여력평가제도





I. 서론

II. 시가기준 지급여력평가 방식

III. 국내 보험회사 영향분석

IV. 결론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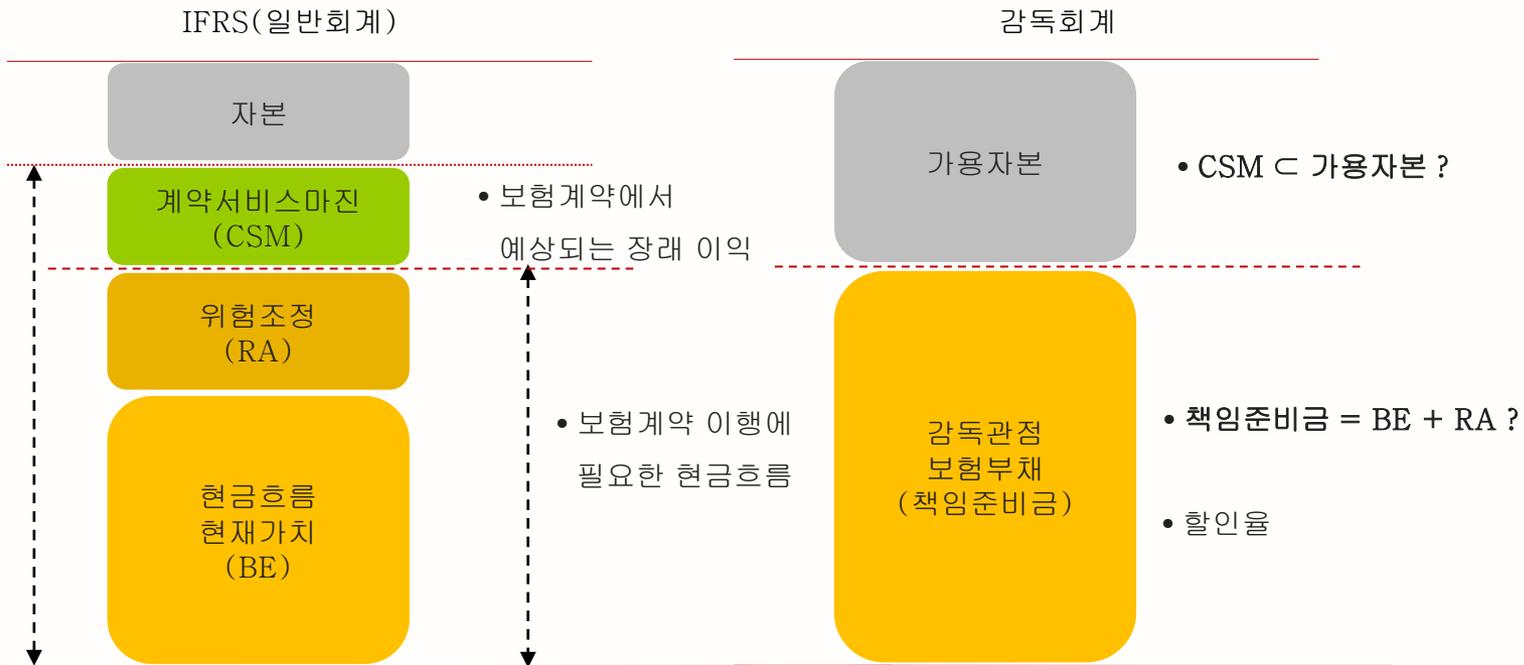
시가기준 지급여력평가



➤ IFRS 시가정보 활용과 가용자본 이슈

■ 감독 관점의 가용자본이란? (책임준비금의 범위)

- 장래이익 제외: IFRS 자본
- 장래이익 반영: 100% 인정(EU), 일부 인정(캐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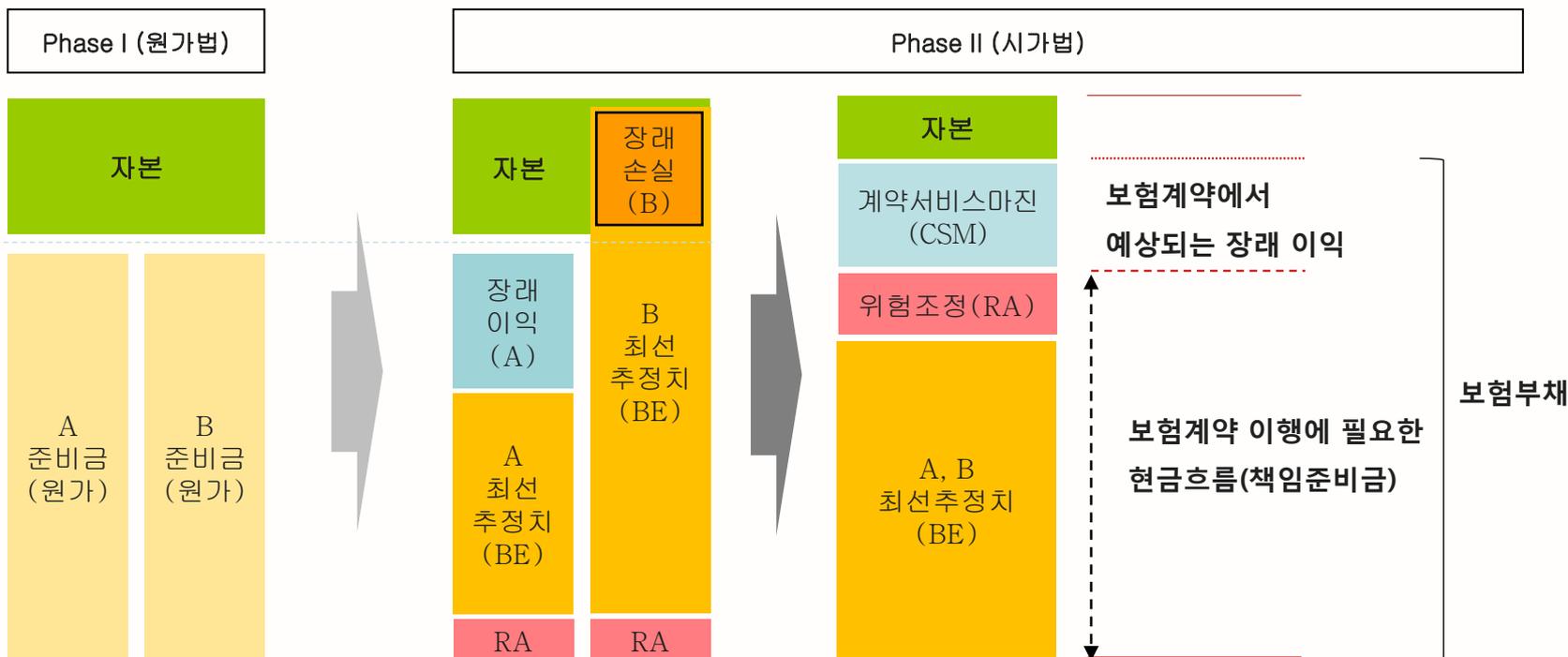


장래이익 제외 - IFRS 자본 활용



➤ IFRS 자본은 장래손실만 반영

- 장래이익은 부채로 표시한 후 보장서비스 제공에 비례하여 천천히 인식
 - 국내 생명보험사의 경우, 상당한 규모의 손실계약 보유





➤ EU Solvency II는 보유계약의 장래이익을 가용자본으로 인정

- Solvency II 재무제표의 부채인 책임준비금은 최선추정치(best estimates)와 위험마진(risk margin)으로 구성
- 보유계약의 장래이익을 가용자본인 기본자본(tier 1)으로 인정
 - 장래이익 = 기납입 보험료의 장래이익 + 미납입 보험료의 장래이익(EPIFP)
 - 2016년 시행안은 EPIFP(Expected profits included in future premiums)도 기본자본(tier 1)으로 인정



➤ 캐나다 MCCSR¹⁾은 보유계약의 장래이익을 가용자본으로 인정

- 보유계약의 장래이익을 가용자본으로 인정
 - 보험부채 = BE + RM²⁾
- 부(-)의 준비금(NR; Negative Reserves)과 해지환급금 부족액(CSVD; Cash Surrender Value Deficiencies)은 보완자본(tier 2c)으로 분류하여 한도 적용
 - 보완자본(tier 2)은 기본자본(tier 1)의 100% 한도 이내에서 인정
 - 1) 부(-)의 준비금: 장래 현금유입 현가가 장래 현금유출 현가보다 큰 경우 발생
 - 계약 단위로 계산
 - 기본자본(tier 1)에서 제외, 보완자본(tier 2c)으로 전부 인정
 - 2) 해지환급금 부족액: $\text{Max}(\text{해지환급금} - \text{보험부채}, 0)$
 - 포트폴리오 단위로 계산
 - 기본자본(tier 1)에서 제외, 보완자본(tier 2c)로 부분(75%)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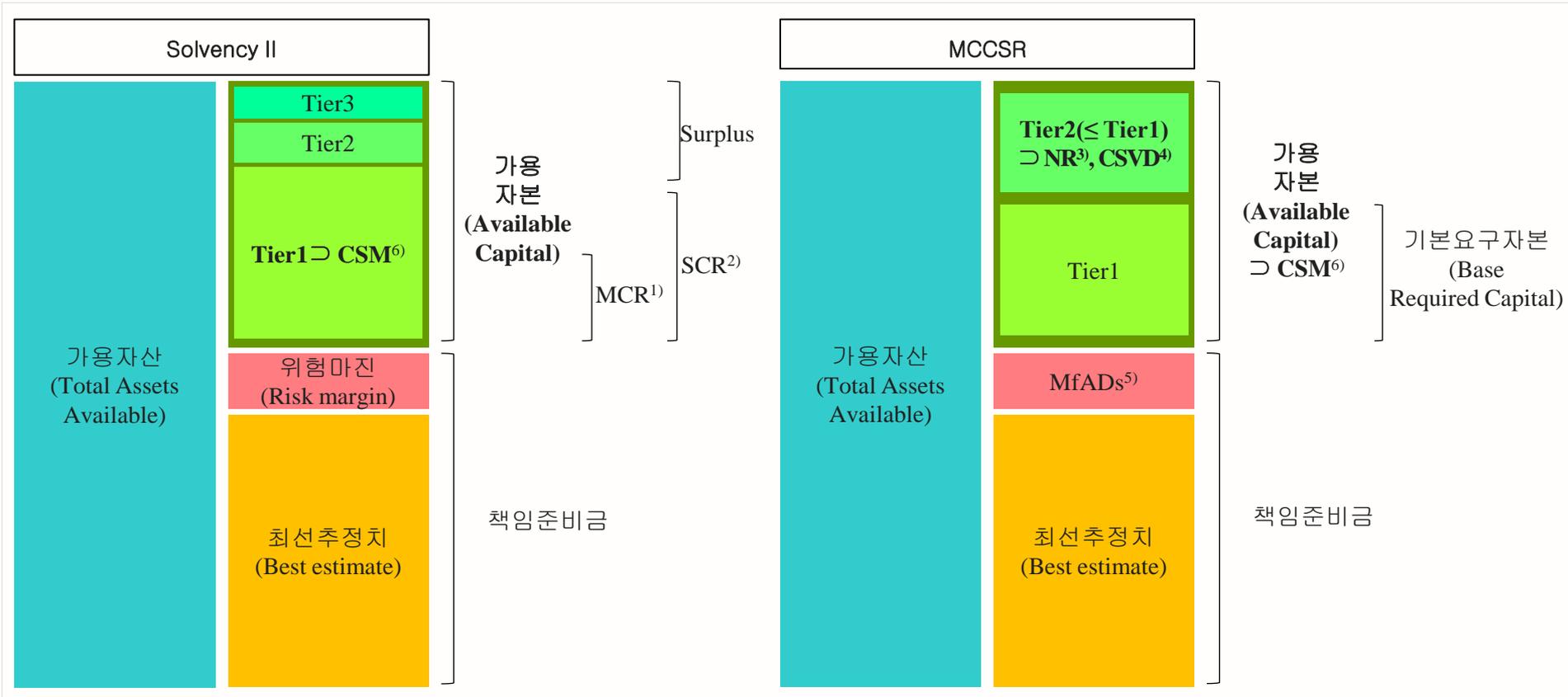
주1) Minimum Continuing Capital and Surplus Requirements

주2) 캐나다에서는 MfADs(Margin for Adverse Deviations)로 표현

장래이익 반영 - EU vs. 캐나다



➤ EU Solvency II와 캐나다 MCCSR은 보유계약의 장래이익을 가용자본으로 인정



주1) MCR(Minimum Capital Requirement) - 최소요구자본
 주2) SCR(Solvency Capital Requirement) - 지급능력요구자본
 주3) NR(Negative Reserve) - 부의 준비금
 주4) CSVD(Cash Surrender Value Deficiencies) - 해지환급금 부족액
 주5) MfADs(Margin for Adverse Deviations)
 주6) 여기서 CSM은 RA와 RM(또는 MfADs)의 차이를 이미 반영한 CSM을 의미함.



I. 서론

II. 시가기준 지급여력평가

III. 국내 보험회사 영향분석

IV. 결론 및 시사점





- **LAT 평가액을 부채의 최선추정치로 가정**
 - 할인율: LAT 할인율
 - 포트폴리오: 4개 (배당 유무, 금리연동 유무)

- **RM = 책임준비금 X 2.67%**
 - RM 비율은 Solvency II QIS 5 참고

- **RA = RM X 50%**

- **요구자본 30% 증가**
 - 국내 RBC 강화 로드맵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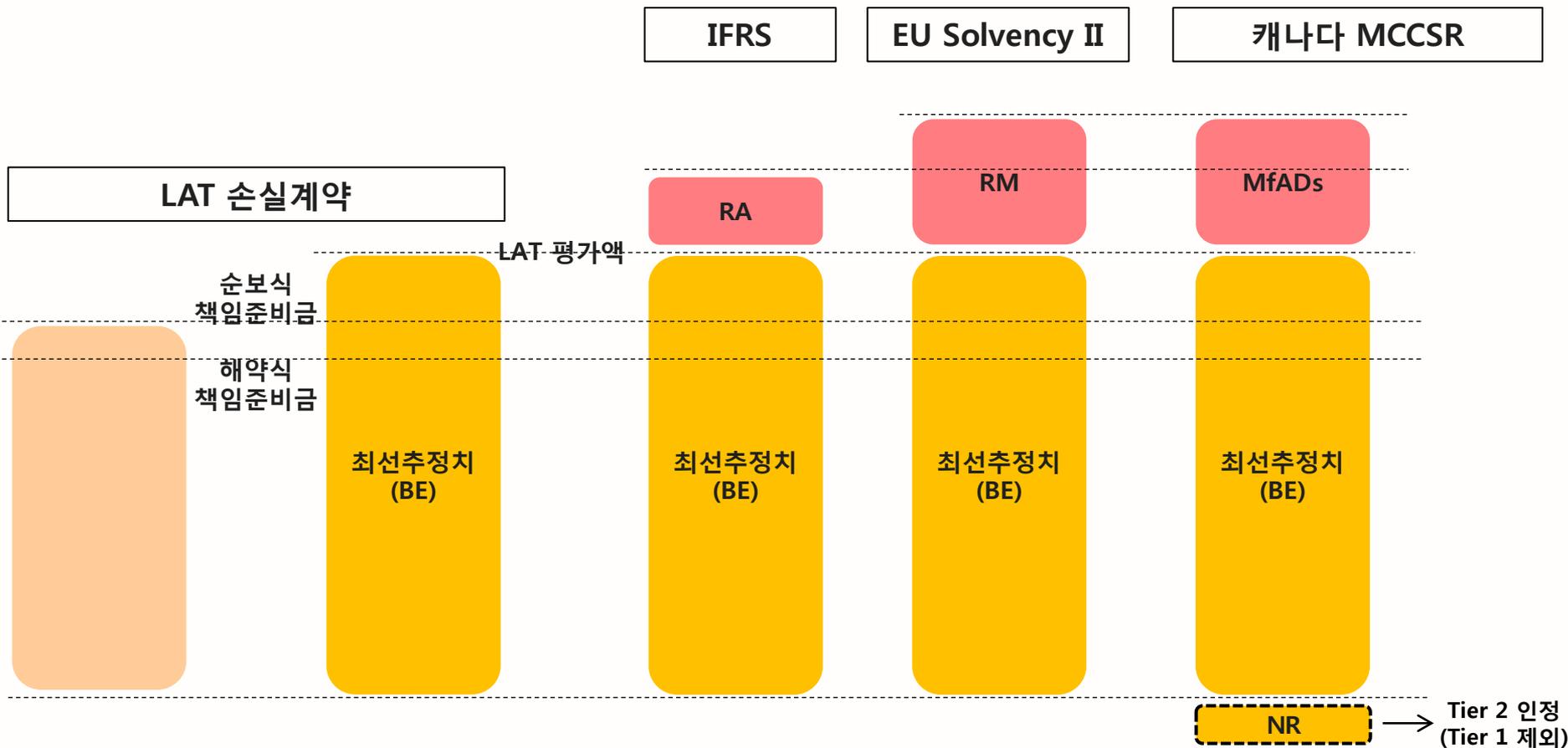
- **우리나라 손실계약의 경우, NR = 0**
 - 우리나라 손실계약의 경우 대부분이 구계약

- **캐나다 MCCSR 적용 시, NR+CSVD의 보완자본(tier 2) 인정 비율 = 75%**
 - NR과 CSVD를 포트폴리오 단위로 계산

영향분석 - LAT 손실계약



➤ LAT 손실계약이란 LAT 평가액이 현행 순보식 책임준비금보다 큰 계약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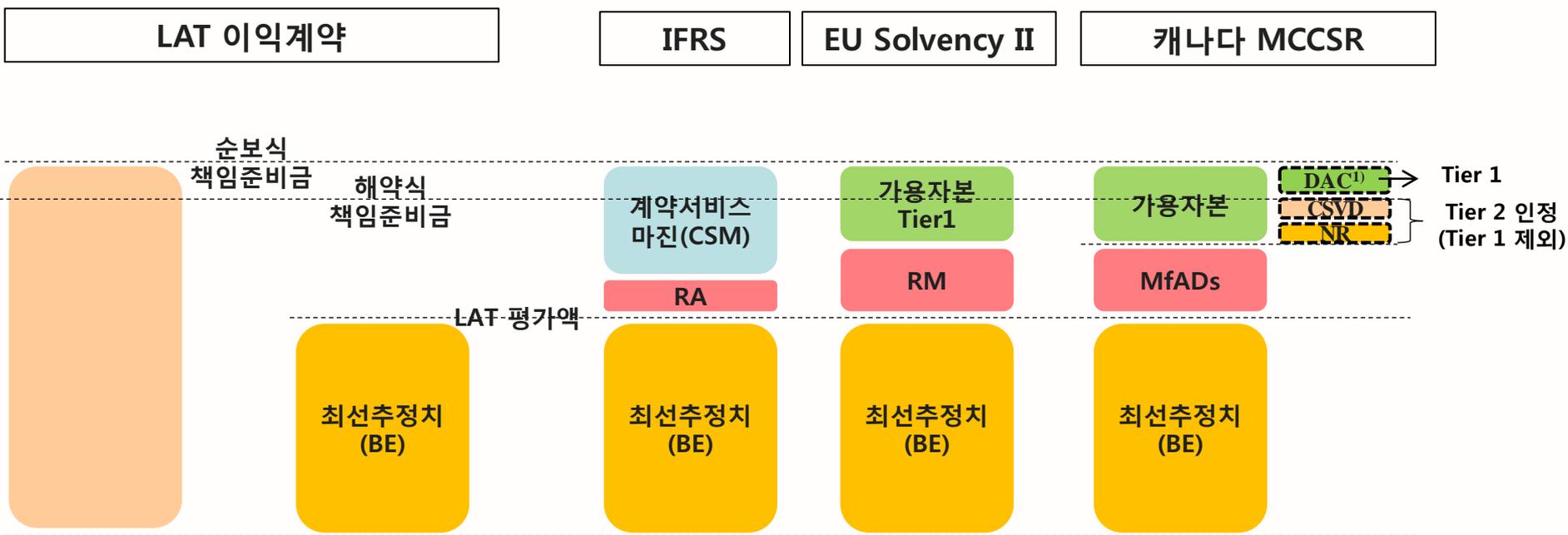


→ Tier 2 인정 (Tier 1 제외)

영향분석 - LAT 이익계약



➤ LAT 이익계약이란 LAT 평가액이 현행 순보식 책임준비금보다 작은 계약을 말함.



주1) DAC(Deferred Acquisition Cost) - 미상각신계약비

분석결과 - 생명보험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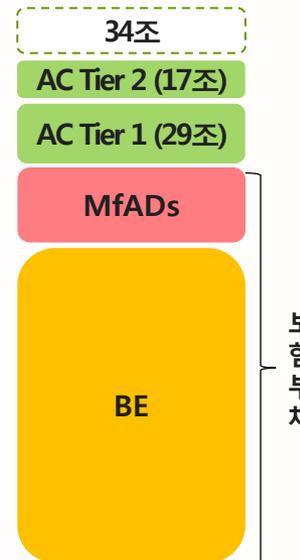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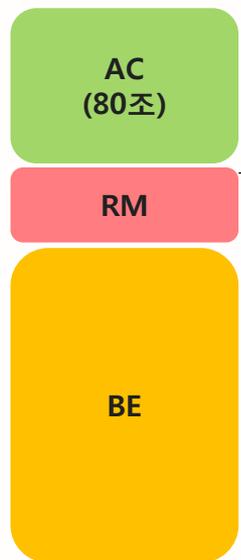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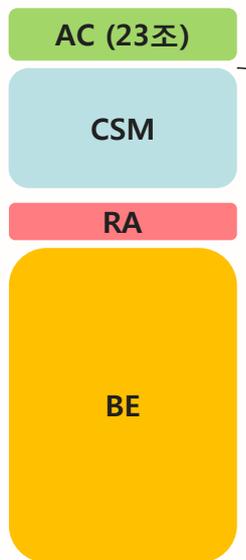
LAT 평가

IFRS

EU Solvency II

캐나다 MCCR

A: 이익계약
B: 손실계약



요구자본 22조

RBC비율 311%

28조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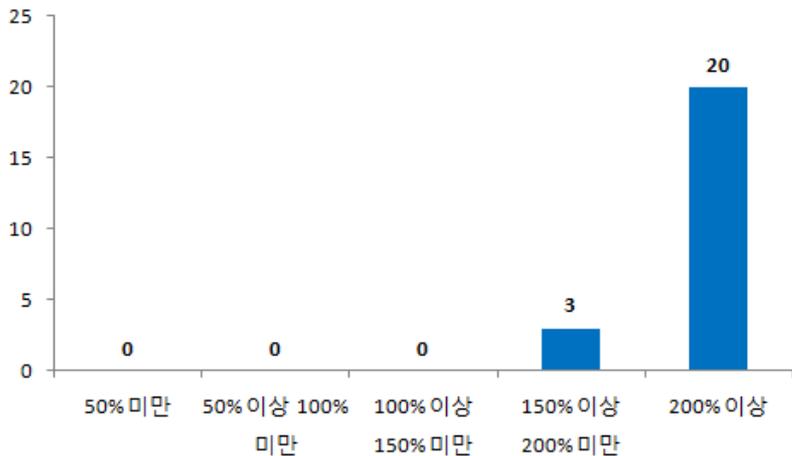
283%

166%

분석결과 - 생명보험 회사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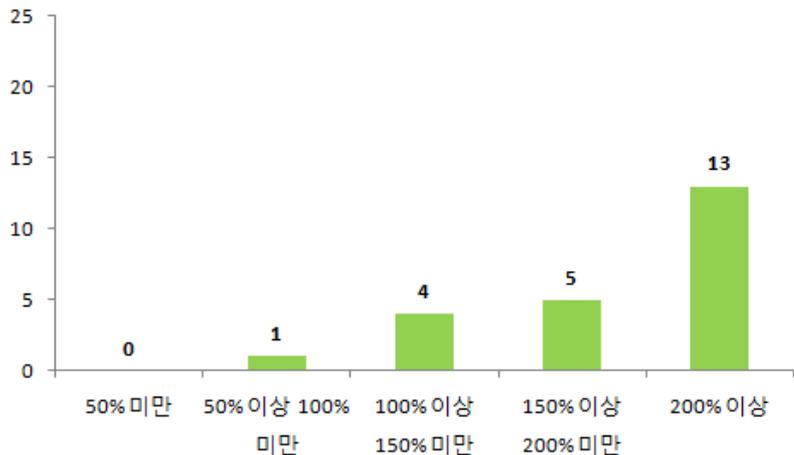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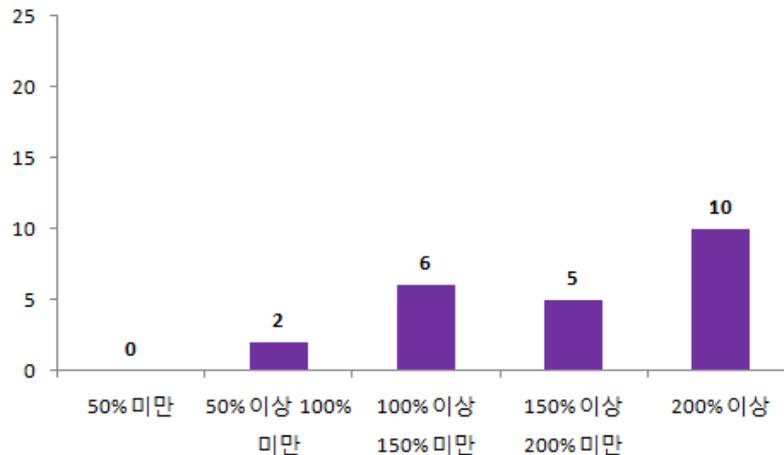
IFRS



EU Solvency II



캐나다 MCCR



주요가정 - 손해보험



- **LAT 평가액을 부채의 최선추정치로 가정**
 - 할인율: LAT 할인율
 - 포트폴리오: 장기 4개 (배당 유무, 금리연동 유무), 일반(자동차 포함) 1개
- **RM = 책임준비금(장기) X 2.67% + 책임준비금(일반) X 7.83%**
 - RM 비율은 Solvency II QIS 5 참고
- **RA = RM(장기) X 50% + RM(일반) X 100%**
- **요구자본 20% 증가**
 - 국내 RBC 강화 로드맵을 반영
- **우리나라 손실계약의 경우, NR = 0**
 - 우리나라 손실계약의 경우 대부분이 구계약
- **캐나다 MCCSR 적용 시, NR+CSVD의 보완자본(tier 2) 인정 비율 = 75%**
 - NR과 CSVD를 포트폴리오 단위로 계산

분석결과 - 손해보험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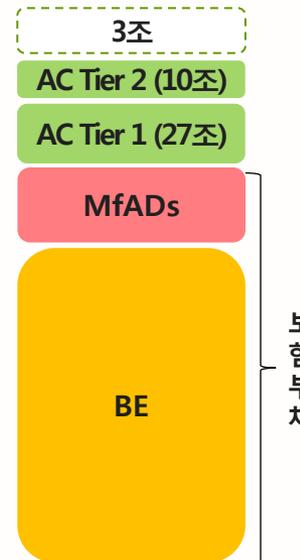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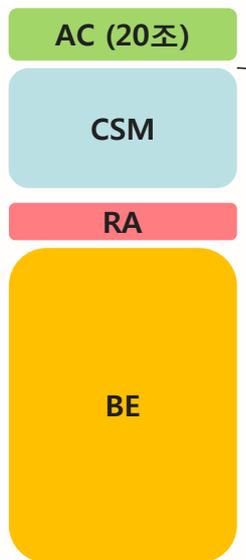
LAT 평가

IFRS

EU Solvency II

캐나다 MCCR

A: 이익계약
B: 손실계약



요구자본 9조
RBC비율 243%

11조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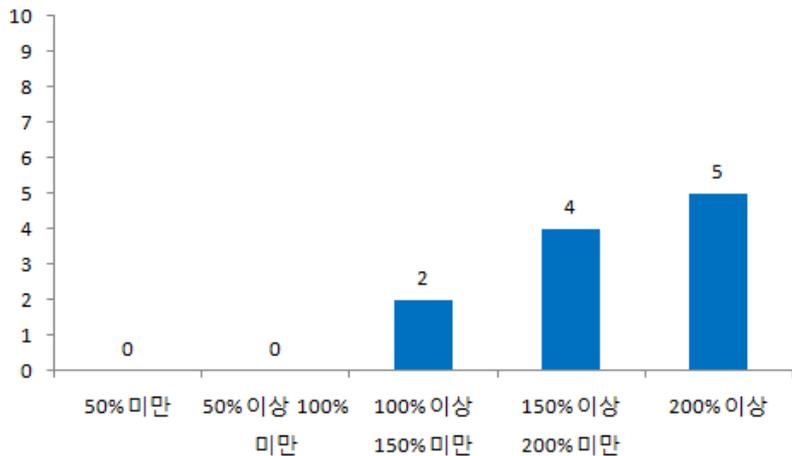
374%

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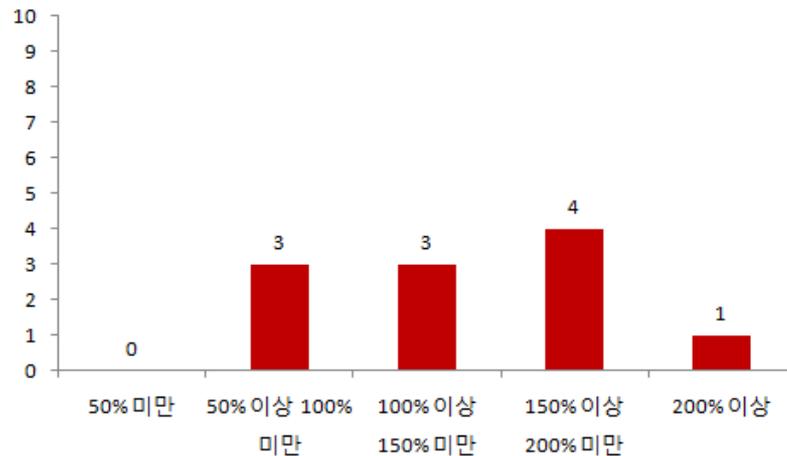
분석결과 - 손해보험 회사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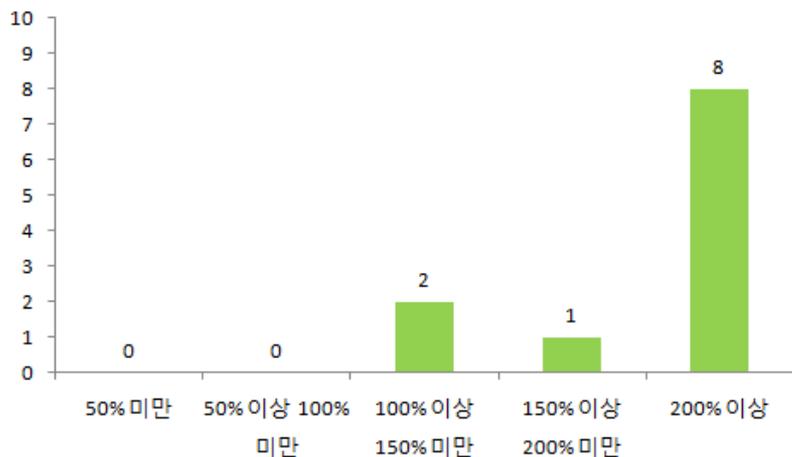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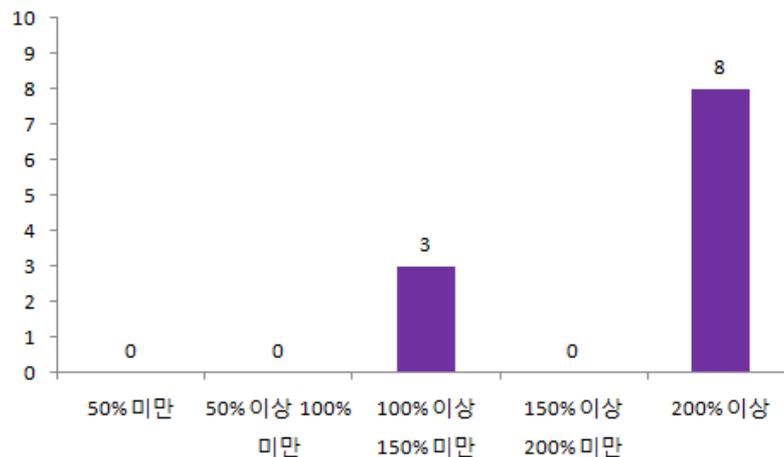
IFRS



EU Solvency II



캐나다 MCCR





I. 서론

II. 시가기준 지급여력평가

III. 국내 보험회사 영향분석

IV. 결론 및 시사점





- **보유계약의 장래이익은 지급여력평가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
 - 지급여력평가 목적은 같지만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
 - EU Solvency II: 장래이익을 기본자본으로 인정
 - Pillar II(정성평가)에서 유동성 위험 모니터링
 - 캐나다 MCCSR: Pillar I(정량평가)에서 장래이익의 가용자본 인정 범위를 한정

- **(감독당국) 시가기준 지급여력평가제도 마련**
 - IFRS 정보활용 원칙수립
 - 제도설계 투명성 제고



- (보험회사) 자본확충계획 마련과 시스템 투자
 - IFRS4 Phase II 시행에 따른 자본확충계획
 - 시스템과 인력에 대한 투자

- (보험산업) 신뢰할 수 있는 계리인프라 구축
 - 보험부채평가에 대한 산업 내 표준을 주도할 계리인프라 구축
 - 금융당국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공감대 형성



감사합니다.

Q & A